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指導教授 朴 龍 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正 浩

1993年 8月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指導教授 朴 龍 垞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正 浩



金正浩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金 恒 元
采 成 大
朴 龍 垞



<抄錄>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意識 調査

金 正 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朴 龍 炯

本研究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의 經濟意識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제의식 형성의 방향과 경제의식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의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중학생 1,056명을 표집하여 勞動觀, 職業觀, 消費觀, 貯蓄觀, 國民經濟觀, 國民福祉觀 등 6개 영역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背景變因別 차이를 밝히기 위해 百分比와 χ^2 檢證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勞動觀에서는 노동의 신성함에 82.2%,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96.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노사갈등은 70.0%의 반응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었다.

職業觀에서는 직업 선택의 기준에 적성이 69.3%의 반응을 보였으며, 高學年일수록,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보수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66.6%의 반응을 보였다.

消費觀에서는 상품 선택의 기준에서 품질(46.1%), 모양(21.5%), 가격(20.3%)의 順位로 응답했으며, 고학년과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모양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학용품 관리는 혼자 찾다 그만 둔다는 응답이 76.5%였으며, 용돈은 필요할 때 마다 51.6%, 한 달에 한번 20.3%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貯蓄觀에서는 3,000원 미만이거나 전혀 하지않는다는 응답이 60%를 上廻하고 있

으며 저축 증대를 위해 低學年의 경우는 경제 교육의 효과에 큰 기대(59.3%)를 하나, 고학년은 물가 안정이나 은행 利子를 높이는 데 기대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國民經濟觀에서는 빈곤의 책임을 고학년일수록 자신 이외의 탓(43.7%)에 돌리고 있으며, 미래 경제에 대해서는 53.3%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76.6%가 성실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당연한 개방은 4.1%만이 찬성하고 있다.

國民福祉觀에서는 68.2%가 국가적 사회 보장 제도에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중점은 환경 33.4%, 교육 26.2%, 노후 생계 18.8%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문화·복지시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년일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중학생들의 바람직한 경제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은 實物 經濟의 이해를 위한 理論 敎育의 강화,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價値 敎育의 강화, 경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경제 교육의 강화,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학생들의 경제의식과 관련된 계속적이고 深層的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의식이 습득되고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2
II. 理論的 背景	3
1. 經濟意識의 概念	3
2. 經濟意識에 關한 研究 動向	4
III. 研究의 方法	8
1. 調査道具	8
2. 標 集	9
3. 資料處理	11
IV. 結果 및 論議	12
1. 勞動觀	12
2. 職業觀	16
3. 消費觀	23
4. 貯蓄觀	36
5. 國民經濟觀	43
6. 國民福祉觀	52
V. 結論：要約 및 提言	59
參考文獻	64
英文抄錄	65
附 錄	68



表 目 次

〈표 1〉 經濟意識 形成 要素	4
〈표 2〉 經濟意識 領域 및 內容	8
〈표 3〉 調查 道具의 構成	9
〈표 4〉 質問紙 配付 및 回收 現況	10
〈표 5〉 背景 變因別 資料 處理 人員	10
〈표 6〉 勞動의 神聖함	13
〈표 7〉 勞動組合	14
〈표 8〉 勞使 葛藤	15
〈표 9〉 職業 選擇의 基準	17
〈표 10〉 職業에 對한 認識	19
〈표 11〉 職員 採用 基準	20
〈표 12〉 勞動者의 待遇	22
〈표 13〉 商品 選擇의 基準	24
〈표 14〉 有名 商標에 對한 認識	26
〈표 15〉 輸入商品에 對한 認識	27
〈표 16〉 高價品에 對한 認識	29
〈표 17〉 學用品 管理	31
〈표 18〉 용돈 마련 方法	33
〈표 19〉 용돈 支出 實態	35

〈표 20〉 貯蓄의 目的	37
〈표 21〉 한 달 貯蓄額	38
〈표 22〉 貯蓄의 必要性	40
〈표 23〉 貯蓄 增大策	42
〈표 24〉 貧困의 責任	44
〈표 25〉 우리 나라의 未來 經濟에 對한 展望	46
〈표 26〉 못 사는 理由	48
〈표 27〉 農産物 輸入	49
〈표 28〉 經濟的 成功 要因	51
〈표 29〉 불우 이웃 支援 方法	53
〈표 30〉 福祉制度의 重點	54
〈표 31〉 文化施設	56
〈표 32〉 福祉施設	57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60年代 이후 우리 나라는 여섯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행하면서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와 소비 생활의 내용면에서도 상당 수준의 향상을 가져 왔다.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과 産業化는 사회의 多方面에 있어서 意識構造 및 價値觀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經濟意識은 더욱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對外的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념 대립적 구도가 해체되면서 對北方 경제 교류 등 개방화에 따른 경제 환경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對內的으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요구 증대, 所得과 富의 再分配, 過消費, 失業, 勞使關係, 물가상승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¹⁾

사이몬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의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구조가 그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듯이²⁾ 날로 복잡해져가는 경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식구조가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등이 과거 약 200년간 성장하여 오늘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그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바람직하지 않고는 200년이라는 장기간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바람직하게 되려면 能率과 경제 원리가 중시되어야 한다.

경제의식이라는 말은 국민 경제나 家計 運營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중학생의 경제의식 조사는 장차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나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 구성원의 경제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1) 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3.

2) 宋丙洛(1990), 『韓國 經濟論』, 博英社, p.1.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 민주주의에 있으므로 근대화의 先導的地位요 자유 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인 경제 발전은 국민들의 1차적 욕구요 시대이다.³⁾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經濟 外的인 요인이 함께 결합하여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조건으로서는 賦存 資源과 資本, 先導産業의 育成 등 경제적 요인과 經濟 主體인 인간의 의식구조를 들 수 있는데 本研究에서는 경제 주체인 인간의 의식구조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研究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의 경제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제의식 형성의 방향과 경제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는 데 있다.

2. 研究의 制限點

1) 本研究의 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한 2개 중학교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2개 중학교, 동부 지역에 위치한 1개 중학교, 서부 지역에 위치한 1개 중학교의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2) 많은 경제의식의 영역 중 6개 영역에 한하여 27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3) 本研究는 質問紙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質問紙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3) 金泰泳(1984), "民主 市民 敎育으로서의 經濟敎育," 「韓國 社會科 敎育學會 第34차 연구 발표회지」, p. 2.

II. 理論的 背景

1. 經濟意識의 概念

경제 사회는 끊임없이 變遷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천은 인간의 경제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경제에 대한 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 행위의 動機 및 규칙이 경제 발전에 至大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제적 주제 행위를 규정하는 目的·동기·行爲規律을 總稱하여 좀바르트(W. Sombart)는 經濟的 指向, 경제의식이라 하였으며 베버(M. Weber)는 정신, 자본주의 정신이라 하였고, 로스토우(W. W. Rostow)는 性向(propensities)이라고 일컫는다. 4)

경제의식이란 말은 경제적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認知的, 情韻的, 評價的 反應 性向을 총칭하는 것⁵⁾, 또는 국민 경제나 가계 운영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⁶⁾, 또는 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기업의식, 소비의식, 국민 경제 및 국제 경제에 대한 의식, 경제 우선을 초월하는 인간 존중이나 국민 복지를 중시하는 의식 등을 내포한다 하겠다. 7)

좀바르트는 경제의식의 문제가 경제 사회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 경제학의 體系內에 경제의식의 문제를 도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제 제도를 이해하려면 기술·정신·의식을 종합, 체계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경제의식이 자본주의적으로 지향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企業簿記 또는 商行爲가 자본주의적 의식 밑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영 의식과 아울러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을 가능케하는 기술 및 자본주의적 질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 조직의 발전과 변혁도 경제의식과의 관련없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그는 경제의식을 <표 1>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경제의식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8)

4) 羅五翼 外(1986), 「經濟學 大辭典」, 博英社, pp. 119-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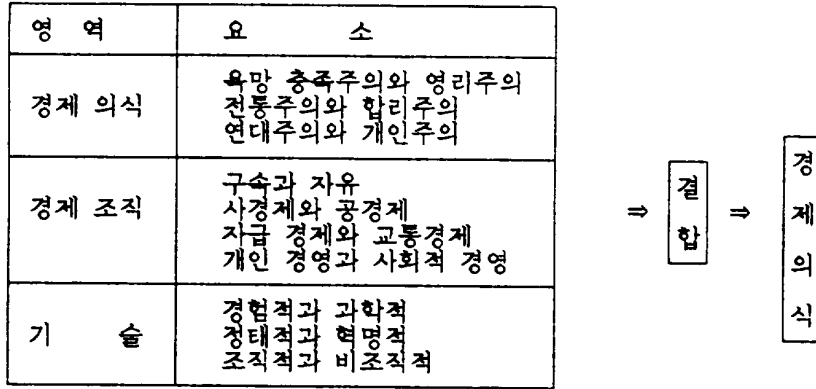
5) 曹永達(1992), 「韓國 經濟 社會의 變遷과 市民 經濟 教育의 改善에 關한 研究」, 「韓國 經濟 教育의 實態 및 課題」, 國民 經濟 教育 研究所, p. 318.

6) 안창시·최일섭(1987), 「전후 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p. 123.

7) 曹永達(1985), 「民主 市民 教育으로서의 經濟教育」, 「社會와 教育」, 제9집, p. 89.

8) 羅五翼 外(1986), 전거서, pp. 119-120.

〈표 1〉 經濟意識 形成 要素



認知的 側面에서 경제학 연구의 방법과 함께 기본적 경제 지식을 익혀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터득하고 情誼的 側面에 있어서 그 사회에 필요한 경제 윤리를 확립할 때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경제의식을 형성했다 할 것이며 이 때의 경제의식은 경제 주체에 있어 그 경제 행위의 목표, 그 경제 행위의 원칙과 함께 그 행위를 일으키는 실제의 對人的 交渉 樣式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며 이는 목적 의식, 방법 의식과 함께 사회관의 근거를 포괄하는 개념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의식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의식이란 경제적 주체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 경제 운영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이며 인간 존중, 국민 복지 등을 증시하는 의식을 말한다고 하겠다.

2. 經濟意識에 關한 研究 動向

호세리츠(B. B. Hoselitz)는 후진국 경제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의식을 다섯개의 유형 變數로 구별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경제 성장 유형을 밝히고 있다. 다섯 개의 변수는 業績的 對 恩惠的, 普遍主義 對 特殊個別主義, 特殊專門的 對 未分化的, 非人情的 對 人情的, 私的志向 對 公的志向 등이다.¹⁰⁾

파슨즈(T. Parsons)는 社會行態學的 立場에서 경제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9) 曹永達(1985), "民主 市民 敎育으로서의 經濟 敎育," 「社會와 敎育」, 제9집, p. 89.

10) 權五翼 外(1964), 「經濟學 大辭典」, 博英社, p. 120.

경제 주체의 행위가 前근대적 유형과 근대적 유형으로 兩分된 다섯 유형 변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 다섯 변수란 感情的 中立 對 感情的, 自我 志向 對 集合體志向, 普遍主義 對 特殊主義, 兼業 對 歸屬, 機能的 特定性 對 機能的 分散을 말한다. 11)

베버(Max Weber)는 합리적 금융에 의한 자각적인 인간과 인간미를 탈피한 냉철한 인간으로서 兼業 중심의 普遍主義에 따라 전문인은 자본주의의 '精神的 支柱'라고 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의 금융적 직업윤리로 자본주의의 경제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12)

남선우는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경제적 實質과 능력의 향상이 중등 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인식하에 조사하였다. 13) 조사 대상자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총 210명의 중학생으로서 설문도구는 중학생의 취업관, 경제 생활 실태, 경제 발전에 대한 견해, 장래 생활에 대한 의식 등 4개의 영역에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百分率로 처리되었다. 이 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용이 중학생들의 소비 절약 실태조사에 강조점을 들으로써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으며 標集의 크기도 소규모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저축과 관련된 제반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도시 지역 초·중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14) 설문도구는 경제에 대한 인식과 경제 지식, 경제 인식과 저축과의 연관성, 용돈 및 저축에 관한 의식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χ^2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표집의 크기와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분석 방법도 百分率 분석에서 진일보하여 χ^2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초·중학생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저축 기반 확대에 연구의 기본 초점을 들으로써 풍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홍승직은 기업인의 경제적 價値觀에 대하여 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11) Talcott Parsons and E.A. Shils and Other(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pp. 80-81을 인용한 郭英吉(1988)의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 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p. 24에서 再引用.

12) Max Weber, op. cit., p. 103을 인용한 郭英吉(1988),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 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p. 24에서 再引用.

13) 南先祐(1980), "中學生의 經濟 生活 意識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14) 貯蓄 推進 中央委員會(1988), "初·中學生 經濟 意識 調查."

고 있다. 15) 첫째, 기업에 있어서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둘째, 就業觀에 있어서는 남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동경한다. 셋째, 財産觀에 있어서는 재산을 보존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성격보다 늘리겠다는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넷째, 社會階層觀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섯째, 부하직원 채용은 자격이나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餘裕資金 투자에 대해서는 영리 사업과 자선 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자선 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게 되어있음은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괴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진규는 연구반 1학급과 비교반 1학급을 선정하여 아동들의 경제의식 실태 분석을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고 그 결과와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 다음 아동들의 경제 학습 능력을 伸長시키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데에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경제 자료와 시사 자료를 활용, 교재를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경제 학습을 전개, 경제에 대한 지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16)

조영달은 경제 교육의 이론과 관계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 교육의 動向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주 시민의 양성을 위한 경제 교육의 改善 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7) 認知的 측면에서 경제학 연구의 방법과 함께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익혀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터득하고, 情誼的 측면에 있어서 그 사회에 필요한 경제 윤리를 확립할 때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경제의식을 형성했다 할 것이다.

각영길은 유능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수적 자질을 갖게 하려는 경제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을 探索 提示한다는 목적하에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도구는 7개 영역에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8)

김재인은 價値觀을 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중 經濟觀은 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상품 선택의 기준, 직업 선택의 기준, 기업 윤리에 대한 인식도,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견해, 輸入自由化 등에 대한 반응 태도 등이다. 19)

15) 洪承稷(1969),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 問題 研究所, pp. 63-110.

16) 金鎮圭(1990), "時事 資料 活用을 통한 經濟 意識 內面化 方案," 「社會와 教育」, 제 23호, 韓國 社會科 教育 研究院.

17) 曹永達(1985), "民主 市民 教育으로서의 經濟 教育," 「社會와 教育」, 제9집, P. 89.

18) 郭英吉(1988),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 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P. 24.

19) 金才仁(1985),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임천순·정태화·이광호는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혹은 價値觀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단지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표집이 확보되었으나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경우 제한된 標集을 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을 보면²⁰⁾ 첫째, 19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일 연령 집단 연구(Cohort Group Study)'이다. 즉 청소년들 중 특히 이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택하는 주요 진로인 취업, 대학 진학에 따라 구분되는 진로 경로별 집단간의 반응 차이를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러나 未進學, 未就業者 集團을 제외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지속적인 청소년 대상 經濟 價値觀 조사 연구時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 내용의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다양한 내용을 조사·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고등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진로 경로별로 분석하고 그것이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 국내외의 경제의식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 봤으나 제주도의 특수성에 걸맞는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제주도의 지역 경제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開放化·國際化의 흐름에 대비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산업 競爭力을 높이고 산업·경제 기반을 擴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각종 청소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중학생의 경제의식이 조사되어 바람직한 경제의식 형성을 위한 지도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本研究의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20) 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요약.

Ⅲ. 研究의 方法

本研究는 중학교 학생들의 경제의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文獻研究와 調査研究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제의식의 개념과 先行 研究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연구는 質問紙法을 사용하였다.

1. 調査道具

제주도 중학생의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표 2>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제작하였다. 경제의식의 내용을 6개 영역의 27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표 2> 經濟意識 領域 및 內容

영역	개념
노동관	노동의 신성함, 노동 조합, 노사 갈등
직업관	직업 선택의 기준, 직업에 대한 인식,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대우
소비관	상품 선택 기준, 유명 상표 인식, 수입 상품 인식, 고가품 인식, 학용품 관리, 용돈 마련 방법, 용돈 지출 실태
저축관	저축 실태, 저축의 필요성, 저축 증대책
국민 경제관	빈부 격차의 원인, 경제 전망, 빈곤의 원인,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인식, 경제적 성공 요인
국민 복지관	사회 보장, 복지 국가, 문화 시설, 복지 시설

경제의식 조사 도구는 先行 研究에서 사용하였던 질문지를 참고로하여 6개 영역 총 2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調査 道具의 構成

경제의식 영역	질 문 내 용	답지에 내포된 경제 의식	문항번호	문항수
노동관	노동의신성함 노동조합등 노사협조	노동에 대한 가치 의식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 노사 협조에 대한 의식	1	3
			2	
			3	
직업관	직업선택의 기준 직업에 대한 인식 직업에 채용 기준 근로자의 대우	직업에 대한 가치 의식 직업에 대한 가치 의식 고용 기준에 대한 의식 근로자 대우에 대한 의식	4	4
			5	
			8	
			7	
소비관	상품선택의 기준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수입상품에 대한 인식 고급상품에 대한 인식 학용품 관리 방음벽 방진벽 방진벽 방진벽 방진벽	양질의 상품 선택 의식 유명상표에 대한 의식 외국제품과 국산품의 비교 의식 가격과 질의 비교 의식 학용품 관리에 대한 의식 방음벽 방진벽 방진벽 방진벽 방진벽	8	7
			9	
			10	
			11	
			12	
			13	
			14	
저축관	저축의 목적 저축의 필요성 저축의 필요성 저축 증대책	저축하는 이유 저축 여부 및 금액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저축 증대책에 대한 의식	15	4
			16	
			17	
			18	
국민 경제관	민간의 책임 우리 나라 미래 경제 못 사는 이유 농산물 수입 경제적 성공 요인	가난의 책임에 대한 의식 경제 전망에 대한 의식 못 사는 이유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식 경제적 성공 요인에 대한 의식	19	5
			20	
			21	
			22	
			23	
국민 복지관	불우 이웃 지원 방법 복지 계도의 지원 방법 문화 시설 복지 시설	불우 이웃을 돕는 방법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의식 청소년 문화 시설에 대한 의식 복지 시설에 대한 의식	24	4
			25	
			26	
			27	

2. 標 集

本研究의 대상은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제주도의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중학교 재학생으로 하였다.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남·여 중학교 1개교씩 2개교, 서귀포시 지역에 위치한 남·여 중학교 1개교씩 2개교, 동부 지역에 위치한 1개교, 서부 지역에 위치한 1개교 등 총 6개교를 無作為 抽出, 標集 학교로 선정하였다. 質問紙는 1992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당 학교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회수하였다.

回收率을 보면 선정된 학교의 재학생 1, 2, 3학년 1학급 씩을 無作為로 선정하여 1학급에 50부씩 총 1,200부를 배부하여 실시한 후 1,129를 회수하여 94.08%의 회수율을 보였다. 質問紙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質問紙 配付 및 回收 現況

	학 년 별			지 역 별				성 별		전 계
	1	2	3	계주시	서귀포시	동부	서부	남	여	
배부	400	400	400	300	300	300	300	600	600	1,200
회수	376	374	379	296	290	278	265	567	562	1,129
*	94	93.5	94.8	98.7	96.7	92.7	88.3	94.5	93.7	94.08

質問紙의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質問紙를 검토, 응답이 누락되거나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한 질문지 73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 대상의 인원은 1,056명이다. 이를 背景變因別로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背景 變因別 資料 處理 人員

背景變인	변인구성	집단	변인구성비(%)	계
성 별	남	523	49.5	1,056
	여	533	50.3	
학년별	1	344	32.6	1,056
	2	344	32.6	
	3	368	34.8	
종교별	기	110	10.4	1,056
	신	143	13.5	
	불	390	36.9	
	부	370	35.0	
	기	43	4.1	
거주지별	시	543	51.4	1,056
	읍	513	48.6	
보호자 교육 정도별	국	167	15.8	1,056
	중	251	23.8	
	고	520	49.3	
	대	117	11.1	
경제적 계층별	상	41	3.9	1,056
	중	880	83.3	
	하	135	12.8	
보호자 직업별	공	105	9.9	1,056
	회	100	9.5	
	사	393	37.2	
	업	441	41.8	
	농	17	1.6	

보호자교육정도별 Missing cases 1.

3. 資料處理

蒐集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전산실에서 電算處理하였다. 本研究에서 사용된 통계치는 百分比(%)이고, 背景變因別 경제의식의 有意한 차이를 알기 위하여 χ^2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本研究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經濟意識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제 의식 형성의 방향과 경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경제의식의 間項別 背景變因에 따라 有意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각 문항에 背景變因別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百分比(%)와 χ^2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勞動觀

제주도 중학생들의 勞動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의 신성함, 노동 조합, 노사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勞動의 神聖함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6>에 따르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반드시 그렇다(18.0%), ② 그럴 수도 있다(64.2%), ③ 그렇지 않다(11.6%), ④ 전혀 그렇지 않다(3.2%), ⑤ 기타(2.6%)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는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性別에서 볼 때 남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學年別로는 1학년이 79.7%, 2학년이 83.1%, 3학년이 84.8%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宗敎別로는 대체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居住地別로는 읍지구(81.1%)보다 시지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84.0%). 보호자 敎育程度別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으로 갈수록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류층보다 상류층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6〉 勞動의 神聖함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190 (18.0)	682 (64.2)	123 (11.6)	34 (3.2)	27 (2.6)
성별	남	523 (49.5)	0.365	4	0.9852	96 (18.4)	335 (64.1)	60 (11.5)	18 (3.4)	14 (2.7)
	여	533 (50.5)				94 (17.6)	347 (65.1)	63 (11.8)	16 (3.0)	13 (2.4)
학년별	1	344 (32.6)	15.121	8	0.0568	55 (16.0)	219 (63.7)	43 (12.5)	14 (4.1)	13 (3.8)
	2	344 (32.6)				75 (21.8)	211 (61.3)	46 (13.4)	6 (1.7)	6 (1.7)
	3	368 (34.8)				60 (16.3)	252 (68.5)	34 (9.2)	4 (3.8)	8 (2.2)
종교별	기독교	110 (10.4)	10.176	16	0.8573	20 (18.2)	69 (62.7)	14 (12.7)	4 (3.6)	3 (2.7)
	천주교	143 (13.5)				23 (16.1)	90 (62.9)	18 (12.6)	7 (4.9)	5 (3.5)
	불교	390 (36.9)				74 (19.0)	246 (63.1)	50 (12.8)	8 (2.1)	12 (3.1)
	무교	370 (35.0)				68 (18.4)	246 (66.5)	36 (9.7)	13 (3.5)	7 (1.9)
	기타	43 (4.1)				5 (11.6)	31 (72.1)	5 (11.6)	2 (4.7)	0 (0.0)
거주지역별	시지구	543 (51.4)	6.887	4	0.1420	87 (16.0)	369 (68.0)	56 (10.3)	19 (3.5)	12 (2.2)
	읍지구	513 (48.6)				103 (20.1)	313 (61.0)	67 (13.1)	15 (2.9)	15 (2.9)
보훈자격을 가진 정도별	국졸	167 (15.8)	15.678	12	0.2064	38 (22.8)	104 (62.3)	12 (7.2)	7 (4.2)	6 (3.6)
	중졸	251 (23.8)				41 (16.3)	170 (67.7)	23 (9.2)	7 (2.8)	10 (4.0)
	고졸	520 (49.3)				89 (17.1)	355 (64.4)	72 (13.8)	16 (3.1)	8 (1.5)
	대졸	117 (11.1)				22 (18.8)	72 (61.5)	16 (13.7)	4 (3.4)	3 (2.6)
	미취득									
직업계층별	상류층	41 (3.9)	13.014	8	0.1114	13 (31.7)	17 (41.5)	9 (22.0)	1 (2.4)	1 (2.4)
	중류층	880 (83.3)				154 (17.5)	573 (65.1)	102 (11.6)	29 (3.3)	22 (2.5)
	하류층	135 (12.8)				23 (17.0)	92 (68.1)	12 (8.9)	4 (3.0)	4 (3.0)
직업별	공무원	105 (9.9)	12.322	16	0.7215	19 (18.1)	71 (67.6)	10 (9.5)	2 (1.9)	3 (2.9)
	회사원	100 (9.5)				11 (11.0)	67 (67.0)	14 (14.0)	6 (6.0)	2 (2.0)
	상업	393 (37.2)				76 (19.3)	248 (63.1)	44 (11.2)	11 (2.8)	14 (3.6)
	농수산업	441 (41.8)				80 (18.1)	284 (64.4)	54 (12.2)	15 (3.4)	8 (1.8)
	무직	17 (1.6)				4 (23.5)	12 (70.6)	1 (5.9)	0 (0.0)	0 (0.0)

2) 勞動 組合

노동 조합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 조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7>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한다(43.6%), ② 어느 정도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한다(53.1%), ③ 전혀 필요치 않은 단체라고 생각한다(0.9%), ④ 없어야 좋은 단체라고 생각한다(1.4%), ⑤ 기타(1.0%)로 나타났다.

〈표 7〉 勞動組合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460 (43.6)	561 (53.1)	9 (0.9)	15 (1.4)	11 (1.0)
성별	남	(49.5)	10.309	4	0.0355*	211	288	8	9	7
		533 (50.5)				(40.3) (46.7)	(55.1) (51.2)	(1.5) (0.2)	(1.7) (1.1)	(1.3) (0.8)
학년	1	344 (32.6)	5.394	8	0.7148	154	174	4	6	6
	2	344 (32.6)				150	185	3	3	3
	3	368 (34.8)				(43.6) (42.4)	(53.8) (54.9)	(0.9) (0.5)	(0.9) (1.6)	(0.9) (0.5)
종교	개신교	110 (10.4)	16.362	16	0.4280	51	53	1	1	4
	천주교	143 (13.5)				64	74	3	1	1
	불교	390 (36.9)				163	218	2	5	2
	무교	370 (35.0)				(41.8) (44.6)	(55.9) (51.9)	(0.5) (0.8)	(1.3) (1.9)	(0.5) (0.8)
	기타	43 (4.1)				17 (39.5)	24 (55.8)	0 (0.0)	1 (2.3)	1 (2.3)
지역	시지구	543 (51.4)	0.907	4	0.9235	240	284	5	9	5
	읍지구	513 (48.6)				(44.2) (42.9)	(52.3) (54.0)	(0.9) (0.8)	(1.7) (1.2)	(0.9) (1.2)
지역외부	국출	167 (15.8)	20.083	12	0.0655	85	75	0	2	5
	중출	251 (23.8)				104	139	2	2	4
	고출	520 (49.3)				(41.4) (41.3)	(55.4) (55.6)	(0.8) (1.2)	(0.8) (1.7)	(1.6) (0.2)
	대출	117 (11.1)				55 (47.0)	58 (49.6)	1 (0.9)	2 (1.7)	1 (0.9)
직업	상류층	41 (3.9)	6.709	8	0.5683	17	23	0	1	0
	중류층	880 (83.3)				(41.5) (42.8)	(56.1) (54.1)	(0.0) (0.9)	(2.4) (1.1)	(0.0) (1.0)
	하류층	135 (12.8)				65 (48.9)	52 (45.9)	1 (0.7)	4 (3.0)	2 (1.5)
지역외부	공무원	105 (9.9)	18.305	16	0.3064	56	47	1	1	0
	회사원	100 (9.5)				(53.3) (35.0)	(44.8) (59.0)	(1.0) (2.0)	(1.0) (3.0)	(0.0) (1.0)
	상업	393 (37.2)				175	202	5	6	5
	농수산업	441 (41.8)				(44.5) (42.6)	(51.4) (55.1)	(1.3) (0.2)	(1.5) (0.9)	(1.3) (1.1)
	무직	17 (1.6)				6 (35.3)	10 (58.8)	0 (0.0)	1 (5.9)	0 (0.0)

* P<0.05

전체적으로 노동 조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背景變因別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남녀학생 모두 노동 조

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性別로는 P<0.05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 이면서 여학생이 더 노동 조합은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3) 勞使 葛藤

〈표 8〉 勞使 葛藤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42 (1.0)	101 (9.6)	743 (70.4)	152 (14.4)	18 (1.7)
성	남	523 (49.5)	30.899	4	**** 0.0000	34 (6.5)	54 (10.3)	336 (64.2)	92 (17.6)	7 (1.3)
별	여	533 (50.5)				8 (1.5)	47 (8.8)	407 (76.4)	60 (11.3)	11 (2.1)
학	1	344 (32.6)	23.488	8	** 0.0028	25 (7.3)	26 (7.6)	228 (66.2)	60 (17.4)	5 (1.5)
년	2	344 (32.6)				12 (3.5)	38 (11.0)	242 (70.3)	45 (13.1)	7 (2.0)
별	3	368 (34.8)				5 (1.4)	37 (10.1)	273 (74.2)	47 (12.8)	6 (1.6)
종	개신교	110 (10.4)	16.610	16	0.4113	5 (4.5)	8 (7.3)	79 (71.8)	17 (15.5)	1 (0.9)
	천주교	143 (13.5)				6 (4.2)	14 (9.8)	95 (66.4)	25 (17.5)	3 (2.1)
	불교	390 (36.9)				14 (3.6)	36 (9.2)	285 (73.1)	50 (12.8)	5 (1.3)
	무교	370 (35.0)				15 (4.1)	38 (10.3)	261 (70.5)	47 (12.7)	9 (2.4)
	기타	43 (4.1)				2 (4.7)	5 (11.6)	23 (53.5)	13 (30.2)	0 (0.0)
거주지	시지구	543 (51.4)	0.938	4	0.9191	21 (3.9)	54 (9.9)	380 (70.0)	77 (14.2)	11 (2.0)
읍지구	513 (48.6)	21 (4.1)				47 (9.2)	363 (70.8)	75 (14.6)	7 (1.4)	
보통	졸	167 (15.8)	13.182	12	0.3560	5 (3.0)	18 (10.8)	111 (66.5)	30 (18.0)	3 (1.8)
	중	251 (23.8)				15 (6.4)	27 (10.8)	164 (65.3)	38 (15.1)	6 (2.4)
	고졸	520 (49.3)				18 (3.5)	47 (9.0)	381 (73.3)	68 (13.1)	6 (1.2)
대	졸	117 (11.1)	3 (2.6)	8 (6.8)	87 (74.4)	16 (13.7)	3 (2.6)			
경제	상류층	41 (3.9)	31.166	8	0.0001	7 (17.1)	6 (14.6)	23 (56.1)	5 (12.2)	0 (0.0)
	중류층	880 (83.3)				26 (3.0)	82 (9.3)	637 (72.4)	120 (13.6)	15 (1.7)
	하류층	135 (12.8)				9 (6.7)	13 (9.6)	83 (61.5)	27 (20.0)	3 (2.2)
직업	공무원	105 (9.9)	12.997	16	0.6730	6 (5.7)	5 (4.8)	73 (69.5)	21 (20.0)	0 (0.0)
	회사원	100 (9.5)				4 (4.0)	8 (8.0)	71 (71.0)	14 (14.0)	3 (3.0)
	상업	393 (37.2)				17 (4.3)	39 (9.9)	278 (70.7)	51 (13.0)	8 (2.0)
	농수산업	441 (41.8)				14 (3.2)	48 (10.9)	310 (70.3)	62 (14.1)	7 (1.6)
	무직	17 (1.6)				1 (5.9)	1 (5.9)	11 (64.7)	4 (23.5)	0 (0.0)

** P<0.005 *** P<0.0005 **** P<0.0001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조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8>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1.0%), ②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9.6%), ③ 양쪽에 책임이 있다(70.4%), ④ 법률로 막고 담당기관이 조정해 주어야 한다(14.4%), ⑤ 기타(1.7%)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P<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兩非論적이다. 學年別로는 고학년에 갈수록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노·사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법률로 막고 담당기관이 조정을 해야한다는 반응과 학년이 낮아질수록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P<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노·사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류층과 하류층이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반면 상류층의 경우는 사용자의 책임(14.6%)보다 노동자의 책임(17.1%)이 더 크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계층에 따라 勞使紛糾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보호자 職業別에 있어서도 공무원인 경우 나머지 직업보다 더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2. 職業觀

職業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 선택의 기준, 직업에 대한 인식, 직원 채용의 기준,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職業 選擇의 基準

직업의 선택에 대한 가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디에 가장 比重을 두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보수는 적으나 남이 우러러보는 직업(3.8%), ② 아무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10.4%), ③ 보수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69.3%), ④ 보수는 적으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5.8%), ⑤ 기타(10.7%)로 나타났다.

〈표 9〉 職業 選擇의 基準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전체	1,056 (100)				40 (3.8)	110 (10.4)	732 (69.3)	61 (5.8)	113 (10.7)
성별	남	523 (49.5)	27.688	4	*** 0.0000	22 (4.2)	80 (15.3)	338 (64.6)	29 (5.5)	54 (10.3)
		533 (50.5)				18 (3.4)	30 (5.6)	394 (73.9)	32 (6.0)	59 (11.1)
학년	1	344 (32.6)	28.646	8	** 0.0004	17 (4.9)	24 (7.0)	255 (74.1)	22 (6.4)	26 (7.6)
	2	344 (32.6)				10 (2.9)	32 (9.3)	253 (73.5)	16 (4.7)	33 (9.6)
	3	368 (34.8)				13 (3.5)	54 (14.7)	224 (60.9)	23 (6.3)	54 (14.7)
고교	계신고	110 (10.4)	19.897	16	0.2249	3 (2.7)	12 (10.9)	74 (67.3)	7 (6.4)	14 (12.7)
	천주고	143 (13.5)				7 (4.9)	14 (9.8)	97 (67.8)	8 (5.6)	17 (11.9)
	불고	390 (36.9)				20 (5.1)	44 (11.3)	270 (69.2)	25 (6.4)	31 (7.9)
	무고	370 (35.0)				6 (1.6)	35 (9.5)	264 (71.4)	17 (4.6)	48 (13.0)
	기타	43 (4.1)				4 (9.3)	5 (11.6)	27 (62.8)	4 (9.3)	3 (7.0)
거주지	시지구	543 (51.4)	0.194	4	0.9956	20 (3.7)	58 (10.7)	374 (68.9)	32 (5.9)	59 (10.9)
	읍지구	513 (48.6)				20 (3.9)	52 (10.1)	358 (69.8)	29 (5.7)	54 (10.5)
부모자녀유무	국졸	167 (15.8)	22.367	12	* 0.0336	2 (1.2)	22 (13.2)	116 (69.5)	9 (5.4)	18 (10.8)
	중졸	251 (23.8)				17 (6.8)	22 (8.8)	176 (70.1)	14 (5.6)	22 (8.8)
	고졸	520 (49.3)				14 (2.7)	54 (10.4)	369 (71.0)	31 (6.9)	52 (10.0)
	대졸	117 (11.1)				7 (6.0)	12 (10.3)	71 (60.7)	6 (5.1)	21 (17.9)
경제적계층	상류층	41 (3.9)	8.987	8	0.3434	1 (2.4)	5 (12.2)	30 (73.2)	1 (2.4)	4 (9.8)
	중류층	880 (83.3)				32 (3.6)	85 (9.7)	622 (70.7)	51 (5.8)	90 (10.2)
	하류층	135 (12.8)				7 (5.2)	20 (14.8)	80 (59.3)	9 (6.7)	19 (14.1)
부모자녀	공무원	105 (9.9)	21.573	16	0.1575	3 (2.9)	9 (8.6)	72 (68.6)	2 (1.9)	19 (18.1)
	회사원	100 (9.5)				6 (6.0)	11 (11.0)	64 (64.0)	6 (6.0)	13 (13.0)
	상업	393 (37.2)				15 (3.8)	38 (9.7)	273 (69.5)	21 (5.3)	46 (11.7)
	농수산업	441 (41.8)				14 (3.2)	50 (11.3)	311 (70.5)	31 (7.0)	35 (7.9)
	무직	17 (1.6)				2 (11.8)	2 (11.8)	12 (70.6)	1 (5.9)	0 (0.0)

* P<0.05 ** p<0.0005 *** P<0.0001

背景變因別로 보면 남녀학생 모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강하나 명예육과 富의 추구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적성과 시간적 여유면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P<0.0001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낮아질수록 적성에 맞는 직업을 원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富의 추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宗教別, 居住地別로는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 교육 정도별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그 다음으로는 부의 추구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으로 갈수록 직업 선택 기준으로 명예욕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적성 다음으로 富에 대한 욕망을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택하고 있다.

2) 職業에 對한 認識

직업에 대한 가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수입이 많은 직장(3.7%), ② 안정된 직장(失業, 倒産 위험이 없는 직장)(25.5%), ③ 승진 기회가 많은 직장(1.3%), ④ 자기 능력(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66.6%), ⑤ 기타(2.9%)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입이 많거나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반면 여학생은 자기 능력(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年別로는 1, 2학년보다 3학년이 수입이 많거나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宗教別로는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기타의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인 경우가 他宗教 학생보다 수입이 많거나 안정된 직장에 대한 選好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은 직장을 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圖卒과 大卒의 경우는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中卒과 高卒인 경우가 안정된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의의 있는 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수입이 많은 직장을, 하류층으로

갈수록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으며 P<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의 자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있다.

〈표 10〉 職業에 對한 認識

면인	면인 구분	면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39 (3.7)	269 (25.5)	14 (1.3)	703 (66.6)	31 (2.9)
성	남	523 (49.5)	20.245	4	0.0004	24 (4.6)	156 (29.8)	11 (2.1)	319 (61.0)	13 (2.5)
별	여	533 (50.5)				15 (2.8)	113 (21.2)	3 (0.6)	384 (72.0)	18 (3.4)
학	1	344 (32.6)	19.621	8	0.0119	9 (2.6)	82 (23.8)	6 (1.7)	237 (68.9)	10 (2.9)
년	2	344 (32.6)				7 (2.0)	78 (22.7)	6 (1.7)	242 (70.3)	11 (3.2)
별	3	368 (34.8)				23 (6.3)	109 (29.6)	2 (0.5)	224 (60.9)	10 (2.7)
종	개신교	110 (10.4)	25.965	16	0.0545	3 (2.7)	25 (22.7)	0 (0.0)	78 (70.9)	4 (3.6)
교	천주교	143 (13.5)				5 (3.5)	28 (19.6)	1 (0.7)	104 (72.7)	5 (3.5)
별	불교	390 (36.9)				12 (3.1)	113 (29.0)	8 (2.1)	250 (64.1)	7 (1.8)
	무교	370 (35.0)				14 (3.8)	88 (23.8)	4 (1.1)	249 (67.3)	15 (4.1)
	기타	43 (4.1)				5 (11.6)	15 (34.9)	1 (2.3)	22 (51.2)	0 (0.0)
거주지	시지구	543 (51.4)	3.333	4	0.5038	21 (3.9)	145 (26.9)	9 (1.7)	349 (64.3)	18 (3.3)
별	읍지구	513 (48.6)				18 (3.5)	123 (24.0)	5 (1.0)	354 (69.0)	13 (2.5)
보호자	국출	167 (15.8)	15.304	12	0.2252	3 (1.8)	30 (18.0)	1 (0.6)	127 (76.0)	6 (3.6)
자녀	중출	251 (23.8)				8 (3.2)	69 (27.5)	4 (1.6)	162 (64.5)	8 (3.2)
별	고출	520 (49.3)				22 (4.2)	146 (28.1)	6 (1.2)	332 (63.8)	14 (2.7)
	대출	117 (11.1)				6 (5.1)	24 (20.5)	3 (2.6)	81 (69.2)	3 (2.6)
직업	상류층	41 (3.9)	16.097	8	0.0410	4 (9.8)	15 (36.6)	0 (0.0)	19 (46.3)	3 (7.3)
별	중류층	880 (83.3)				32 (3.6)	218 (24.8)	11 (1.3)	592 (67.3)	27 (3.1)
	하류층	135 (12.8)				3 (2.2)	36 (26.7)	3 (2.2)	92 (68.1)	1 (0.7)
보호자	공무원	105 (9.9)	12.440	16	0.7132	1 (1.0)	32 (30.5)	1 (1.0)	69 (65.7)	2 (1.9)
별	회사원	100 (9.5)				6 (6.0)	24 (24.0)	2 (2.0)	63 (63.0)	5 (5.0)
	상업	393 (37.2)				19 (4.8)	97 (24.7)	7 (1.8)	260 (66.2)	10 (2.5)
	농수산업	441 (41.8)				13 (2.9)	111 (25.2)	4 (0.9)	299 (67.8)	14 (3.2)
	무직	17 (1.6)				0 (0.0)	5 (29.4)	0 (0.0)	12 (70.6)	0 (0.0)

* P<0.05 ** P<0.0005

3) 職員 採用 基準

〈표 11〉 職員 採用 基準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167 (15.8)	639 (60.5)	17 (1.6)	67 (6.3)	166 (15.7)
성별	남 여	523 (49.5)	3.530	4	0.4733	85 (16.3)	318 (60.8)	11 (2.1)	35 (6.7)	74 (14.1)
		533 (50.5)				82 (15.4)	321 (60.2)	6 (1.1)	32 (6.0)	92 (17.3)
학 년 별	1	344 (32.6)	10.750	8	0.2163	47 (13.7)	219 (63.7)	7 (2.0)	15 (4.4)	56 (16.3)
	2	344 (32.6)				52 (15.1)	209 (60.8)	4 (1.2)	30 (8.7)	49 (14.2)
	3	368 (34.8)				68 (18.5)	211 (57.3)	6 (1.6)	22 (6.0)	61 (16.6)
종 교 별	개신교	110 (10.4)	29.843	16	0.0188	19 (17.3)	67 (60.9)	5 (4.5)	6 (5.5)	13 (11.8)
	천주교	143 (13.5)				21 (14.7)	83 (58.0)	2 (1.4)	10 (7.0)	27 (18.9)
	불교	390 (36.9)				63 (16.2)	253 (64.9)	3 (0.8)	26 (6.7)	45 (11.5)
	무교	370 (35.0)				62 (16.8)	205 (55.4)	5 (1.4)	23 (6.2)	75 (20.3)
	기타	43 (4.1)				2 (4.7)	31 (72.1)	2 (4.7)	2 (4.7)	6 (14.0)
거주지 별	시지구	543 (51.4)	7.447	4	0.1140	93 (17.1)	324 (59.7)	13 (2.4)	36 (6.6)	77 (14.2)
	읍지구	513 (48.6)				74 (14.4)	315 (61.4)	4 (0.8)	31 (6.0)	89 (17.3)
모 자 의 학 력 별	국졸	167 (15.8)	40.367	12	0.0001	12 (7.2)	110 (65.9)	1 (0.6)	10 (6.0)	34 (20.4)
	중졸	251 (23.8)				30 (12.0)	168 (66.9)	7 (2.8)	11 (4.4)	35 (13.9)
	고졸	520 (49.3)				93 (17.9)	306 (58.8)	7 (1.3)	41 (7.9)	73 (14.0)
	대졸	117 (11.1)				32 (27.4)	55 (47.0)	2 (1.7)	5 (4.3)	23 (19.7)
	대학원									
직 업 계 급 별	상류층	41 (3.9)	25.955	8	0.0011	7 (17.1)	25 (61.0)	3 (7.3)	1 (2.4)	5 (12.2)
	중류층	880 (83.3)				144 (16.4)	530 (60.2)	7 (0.8)	57 (6.5)	142 (16.1)
	하류층	135 (12.8)				16 (11.9)	84 (62.2)	7 (5.2)	9 (6.7)	19 (14.1)
귀 자 의 직 업 별	공무원	105 (9.9)	33.705	16	0.0060	22 (21.0)	53 (50.5)	2 (1.9)	10 (9.5)	18 (17.1)
	회사원	100 (9.5)				22 (22.0)	58 (58.0)	2 (2.0)	5 (5.0)	13 (13.0)
	상업	393 (37.2)				75 (19.1)	215 (54.7)	7 (1.8)	26 (6.6)	70 (17.8)
	농수산업	441 (41.8)				47 (10.7)	299 (67.8)	5 (1.1)	26 (5.9)	64 (14.5)
	무직	17 (1.6)				1 (5.9)	14 (82.4)	1 (5.9)	0 (0.0)	1 (5.9)

* P<0.05 ** P<0.01 *** P<0.005 **** P<0.0005

직원 채용 기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사 사장이 되어 직원을 채용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직원을 뽑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일류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15.8%), ② 능력은 부족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60.5%), ③ 친척의 소개로 믿을 수 있는 사람(1.6%), ④ 입사 시험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6.3%), ⑤ 기타(15.7%)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남녀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學年別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류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宗教別로는 他宗教 학생보다 개신교 학생이 능력을 우선으로, 기타 종교의 학생이 근면성을 우선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유의 있는 차이는 없으나 일류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응답은 시지구(17.1%) 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능력은 부족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응답은 읍지구(61.4%) 학생이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 教育程度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일류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직원 채용의 기준으로 하겠다는 반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제외) 능력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직원 채용 기준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經濟的 階層別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일류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無職인 경우가 근면성을 우선으로, 회사원의 경우는 능력 우선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勤勞者의 待遇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즘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2>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

각한다(3.7%), ②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27.3%), ③ 대우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생각한다(61.7%), ④ 근로자의 대우를 전혀 못받고 있다고 생각한다(5.3%), ⑤ 기타(2.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대우를 제

(표 12) 勞働者의 待遇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39 (3.7)	288 (27.3)	652 (61.7)	56 (5.3)	21 (2.0)	
성	별	남	47.241	4	0.0000	30	182	278	23	10	
						(5.7)	(34.8)	(53.2)	(4.4)	(1.9)	
		523 (49.5)				9	106	374	33	11	
		(50.5)				(1.7)	(19.9)	(70.2)	(6.2)	(2.1)	
학	년	1	15.588	8	0.0487	20	95	198	19	12	
		(32.6)				(5.8)	(27.6)	(57.6)	(5.5)	(3.5)	
		344 (32.6)				12	90	222	17	3	
		368 (34.8)				7	103	232	20	6	
		(34.8)				(1.9)	(28.0)	(63.0)	(5.4)	(1.6)	
종	교	개신교	19.830	16	0.2280	3	35	65	6	1	
		(10.4)				(2.7)	(31.8)	(59.1)	(5.5)	(0.9)	
		천주교				143	6	29	95	12	1
		(13.5)				(4.2)	(20.3)	(66.4)	(8.4)	(0.7)	
		불교				390	14	114	236	19	7
		(36.9)				(3.6)	(29.2)	(60.5)	(4.9)	(1.8)	
무교	370	12	96	234	16	12					
		(35.0)				(3.2)	(25.9)	(63.2)	(4.3)	(3.2)	
		43 (4.1)				4	14	22	3	0	
		(4.1)				(9.3)	(32.6)	(51.2)	(7.0)	(0.0)	
거주지	별	시	7.164	4	0.1275	17	140	352	22	12	
		(51.4)				(3.1)	(25.8)	(64.8)	(4.1)	(2.2)	
		513 (48.6)				22	148	300	34	9	
		(48.6)				(4.3)	(28.8)	(58.5)	(6.6)	(1.8)	
직업	별	국	20.118	12	0.0649	4	50	100	9	4	
		(15.8)				(2.4)	(29.9)	(59.9)	(5.4)	(2.4)	
		중				251	15	67	154	11	4
		(23.8)				(6.0)	(26.7)	(61.4)	(4.4)	(1.6)	
		고				520	19	150	314	25	12
(49.3)	(3.7)	(28.8)	(60.4)	(4.8)	(2.3)						
		117 (11.1)				1	20	84	11	1	
		(11.1)				(0.9)	(17.1)	(71.8)	(9.4)	(0.9)	
전업	별	상	3.340	8	0.9112	2	15	21	2	1	
		(3.9)				(4.9)	(36.6)	(51.2)	(4.9)	(2.4)	
		중				880	34	235	547	47	17
(83.3)	(3.9)	(26.7)	(62.2)	(5.3)	(1.9)						
		135 (12.8)				3	38	84	7	3	
		(12.8)				(2.2)	(28.1)	(62.2)	(5.2)	(2.2)	
직업	별	공무원	18.510	16	0.2949	2	24	75	2	2	
		(9.9)				(1.9)	(22.9)	(71.4)	(1.9)	(1.9)	
		회사원				100	3	29	57	9	2
		(9.5)				(3.0)	(29.0)	(57.0)	(9.0)	(2.0)	
		상업				393	18	117	232	18	8
		(37.2)				(4.6)	(29.8)	(59.0)	(4.6)	(2.0)	
농수산업	441	16	110	281	25	9					
(41.8)	(3.6)	(24.9)	(63.7)	(5.7)	(2.0)						
		17 (1.6)				0	8	7	2	0	
		(1.6)				(0.0)	(47.1)	(41.2)	(11.8)	(0.0)	

* P<0.05 *** P<0.0001

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 있어서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보다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낮아질수록 근로자가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시지구 학생들이 읍지구 학생보다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불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초·중·고졸인 경우는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졸인 경우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다 고 응답하여 高學歷者들이 근로자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유의 있는 차이는 없으나 상류층이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류층은 상류층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근로자가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상업 4.6%, 공무원의 경우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있다는 반응 71.4%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消費觀



消費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품의 선택기준,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 수입 상품에 대한 인식, 高價品에 대한 認識, 학용품 관리, 용돈 마련 방법, 용돈 지출 방법 등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商品 選擇의 基準

상품 선택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3>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상표(7.7%), ② 모양(21.5%), ③ 가격(20.3%), ④ 품

질(46.1%), ⑤ 기타(4.5%)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품질, 가격, 모양, 상표 순으로 상품을 고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품질, 모양, 가격 順으로 상품을 고르고 있다. 남녀학생 모두 품질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이 가

〈표 13〉 商品 選擇의 基準

변인	변인 구분	변인 인성비 (%)	χ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81 (7.7)	227 (21.5)	214 (20.3)	487 (46.1)	47 (4.5)
성	남	523 (49.5)	23.346	4	0.0001	49 (9.4)	82 (15.7)	112 (21.4)	258 (49.3)	22 (4.2)
별	여	533 (50.5)				32 (6.0)	145 (27.2)	102 (19.1)	229 (43.0)	25 (4.7)
학	1	344 (32.6)	33.777	8	0.0000	27 (7.8)	53 (15.4)	51 (14.8)	194 (56.4)	19 (5.5)
년	2	344 (32.6)				32 (9.3)	81 (23.5)	73 (21.2)	142 (41.3)	16 (4.7)
별	3	368 (34.8)				22 (6.0)	93 (25.3)	90 (24.5)	151 (41.0)	12 (3.3)
종	기	110 (10.4)	19.272	16	0.2548	5 (4.5)	27 (24.5)	17 (15.5)	55 (50.0)	6 (5.5)
교	신	143 (13.5)				15 (10.5)	30 (21.0)	25 (17.5)	67 (46.9)	6 (4.2)
별	주	390 (36.9)				22 (5.6)	83 (21.3)	79 (20.3)	189 (48.5)	17 (4.4)
	고	370 (35.0)				31 (8.4)	78 (21.1)	87 (23.5)	158 (42.7)	16 (4.3)
	무	43 (4.1)				8 (18.6)	9 (20.9)	6 (14.0)	18 (41.9)	2 (4.7)
지	시	543 (51.4)	8.722	4	0.0684	37 (6.8)	124 (22.8)	124 (22.8)	232 (42.7)	26 (4.8)
구	읍	513 (48.6)				44 (8.6)	103 (20.1)	90 (17.5)	255 (49.7)	21 (4.1)
모	국	167 (15.8)	18.309	12	0.1066	11 (6.6)	31 (18.6)	27 (16.2)	85 (50.9)	13 (7.8)
태	중	251 (23.8)				20 (8.0)	57 (22.7)	47 (18.7)	115 (45.8)	12 (4.8)
지	고	520 (49.3)				37 (7.1)	116 (22.3)	108 (20.8)	244 (46.9)	15 (2.9)
구	대	117 (11.1)				13 (11.1)	23 (19.7)	31 (16.5)	43 (36.8)	7 (6.0)
성	상	41 (3.9)	8.903	8	0.3506	6 (14.6)	6 (14.6)	10 (24.4)	18 (43.9)	1 (2.4)
별	중	880 (83.3)				60 (6.8)	189 (21.5)	177 (20.1)	412 (46.8)	42 (4.8)
	하	135 (12.8)				15 (11.1)	32 (23.7)	27 (20.0)	57 (42.2)	4 (3.0)
의	공	105 (9.9)	19.768	16	0.2309	4 (3.8)	20 (19.0)	20 (19.0)	55 (52.4)	6 (5.7)
사	회	100 (9.5)				5 (5.0)	22 (22.0)	22 (22.0)	42 (42.0)	9 (9.0)
업	상	393 (37.2)				38 (9.7)	88 (22.4)	81 (20.6)	169 (43.0)	17 (4.3)
전	농	441 (41.8)				31 (7.0)	96 (21.8)	87 (19.7)	212 (48.1)	15 (3.4)
	수	17 (1.6)				3 (17.6)	1 (5.9)	4 (23.5)	9 (52.9)	0 (0.0)
	무									

** P<0.0005 *** P<0.0001

격을, 여학생은 모양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품질, 모양, 가격의 순으로 상품의 선택 기준을 삼고 있으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양과 가격에 比重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종교별로도 역시 품질을 우선으로 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모양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며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은 품질 다음으로 가격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시지구 학생들은 품질 다음으로 가격과 모양을, 읍지구 학생들은 모양을 가격보다 우선 순위로 삼고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은 품질, 가격, 모양 순으로, 중·하류층은 품질, 모양, 가격 순으로 상품을 고르고 있어 상류층이 중·하류층보다 가격을 우선 순위로 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품질, 모양, 가격 순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있지만 무직인 경우 품질 다음으로 가격을 우선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2) 有名 商標에 對한 認識

유명 상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의 유명 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질이 좋다는데 찬성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4>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매우 찬성한다(5.2%), ② 다소 찬성한다(44.0%), ③ 다소 반대한다(25.0%), ④ 매우 반대한다(8.7%), ⑤ 잘 모르겠다(17.0%)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도 대기업 제품의 질이 더 좋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질이 좋다는 응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1학년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宗教別로는 대기업 제품의 질이 대체적으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시지구 학생이 읍지구 학생보다 더 대기업 제품의 질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로는 國卒인 경우는 대기업의 유명 상표의 상품에 대한 인식도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고·대졸인 경우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매우 찬성인 반면 하류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입장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회사원인 경우가 대기업의 제품이 良質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

〈표 14〉 有名 商標에 對한 認識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55 (5.2)	465 (44.0)	264 (25.0)	922 (8.7)	180 (17.0)
성별	남 여	523 (49.5) 533 (50.5)	23.743	4	0.0001**	43 (8.2) 12 (2.3)	239 (45.7) 226 (42.4)	116 (22.2) 148 (27.8)	40 (7.6) 52 (9.8)	85 (16.3) 95 (17.5)
학년별	1 2 3	344 (32.6) 344 (32.6) 368 (34.8)	37.613	8	0.0000***	23 (6.7) 16 (4.7) 16 (4.3)	109 (31.7) 173 (50.3) 183 (49.7)	103 (29.9) 68 (19.8) 93 (25.3)	33 (9.6) 28 (8.1) 31 (8.4)	76 (22.1) 59 (17.2) 45 (12.2)
종교별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110 (10.4) 143 (13.5) 390 (36.9) 370 (35.0) 43 (4.1)	8.962	16	0.9150	8 (7.3) 5 (3.5) 20 (5.1) 17 (4.6) 5 (11.6)	45 (40.9) 65 (45.5) 174 (44.6) 166 (44.9) 15 (34.9)	26 (23.6) 35 (24.5) 96 (24.6) 95 (25.7) 12 (27.9)	11 (10.0) 10 (7.0) 34 (8.7) 34 (9.2) 3 (7.0)	20 (18.2) 28 (19.6) 66 (16.9) 58 (15.7) 8 (18.6)
거주지별	시지구 읍지구	543 (51.4) 513 (48.6)	6.723	4	0.1513	32 (5.9) 23 (4.5)	254 (46.8) 211 (41.5)	132 (24.3) 132 (25.7)	40 (7.4) 52 (10.1)	85 (15.7) 95 (18.5)
보통자 자영업자 근로자 비정규직	국 중 고 대	167 (15.8) 251 (23.8) 520 (49.3) 117 (11.1)	17.281	12	0.1393	6 (3.6) 14 (5.6) 29 (5.6) 6 (5.1)	61 (36.5) 106 (42.2) 247 (47.5) 50 (42.7)	48 (28.7) 58 (23.1) 126 (24.2) 32 (27.4)	12 (7.2) 25 (10.0) 41 (7.9) 14 (12.0)	40 (24.0) 48 (19.1) 77 (14.8) 15 (12.8)
경제적 계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41 (3.9) 880 (83.3) 135 (12.8)	15.063	8	0.0579	7 (17.1) 42 (4.8) 6 (4.4)	14 (34.1) 391 (41.4) 60 (44.4)	8 (19.5) 218 (24.8) 38 (28.1)	3 (7.3) 80 (9.1) 9 (6.7)	9 (22.0) 149 (16.9) 22 (16.3)
직업 별	공무원 회사원 상업 농수산업 무직	105 (9.9) 100 (9.5) 393 (37.2) 441 (41.8) 17 (1.6)	19.114	16	0.2628	7 (6.7) 9 (9.0) 22 (5.6) 16 (3.6) 1 (5.9)	47 (44.8) 46 (46.0) 171 (43.5) 194 (44.0) 7 (41.2)	29 (27.6) 19 (19.0) 90 (22.9) 121 (27.4) 5 (29.4)	13 (12.4) 9 (9.0) 38 (9.7) 32 (7.3) 0 (0.0)	9 (8.6) 17 (17.0) 72 (18.3) 78 (17.1) 4 (23.5)

** P<0.0005 *** P<0.0001

인 반응의 정도는 無職인 경우가 가장 높다.

3) 輸入商品에 對한 認識

수입상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산품보다 질

〈표 15〉 輸入商品에 對한 認識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35 (3.3)	220 (20.8)	342 (32.4)	340 (32.5)	116 (11.0)
성별	남여	523 (49.5) 533 (50.5)	11.557	4	0.0210 *	26 (5.0) 9 (1.7)	101 (19.3) 119 (22.3)	167 (31.9) 175 (32.8)	165 (31.5) 178 (33.4)	64 (12.2) 52 (9.8)
학년별	1 2 3	344 (32.6) 344 (32.6) 368 (34.8)	15.933	8	0.0434 *	9 (2.6) 14 (4.1) 12 (3.3)	62 (18.0) 76 (22.1) 82 (22.3)	105 (30.5) 127 (36.9) 110 (29.9)	133 (38.7) 95 (27.6) 115 (31.3)	35 (10.2) 32 (9.3) 49 (13.3)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110 (10.4) 143 (13.5) 390 (36.9) 370 (35.0) 43 (4.1)	35.662	16	0.0032 **	4 (3.6) 3 (2.1) 11 (2.8) 11 (3.0) 6 (14.0)	29 (26.4) 39 (27.3) 64 (16.4) 77 (20.8) 11 (25.6)	30 (27.3) 38 (26.6) 136 (34.9) 125 (33.8) 13 (30.2)	39 (35.5) 42 (29.4) 130 (33.3) 123 (33.2) 9 (20.9)	8 (7.3) 21 (14.7) 49 (12.6) 34 (9.2) 4 (9.3)
거주지역별	시지구 읍지구	543 (51.4) 513 (48.6)	25.893	4	0.0000 ***	23 (4.2) 12 (2.3)	138 (25.4) 82 (16.0)	182 (33.5) 160 (31.2)	150 (27.6) 193 (37.6)	50 (9.2) 66 (12.9)
보육자녀유무별	국 중 고 대	167 (15.8) 251 (23.8) 520 (49.3) 117 (11.1)	13.896	12	0.3074	6 (3.6) 9 (3.6) 15 (2.9) 5 (4.3)	27 (16.2) 45 (17.9) 114 (21.9) 33 (28.2)	53 (31.7) 86 (34.3) 173 (33.3) 30 (25.6)	61 (36.5) 82 (32.7) 158 (30.4) 42 (35.9)	20 (12.0) 29 (11.6) 60 (11.5) 7 (6.0)
경제적계층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41 (3.9) 880 (83.3) 135 (12.8)	13.778	8	0.0877	5 (12.2) 25 (2.8) 5 (3.7)	10 (24.4) 186 (21.1) 24 (17.8)	10 (24.4) 287 (32.6) 45 (33.3)	12 (29.3) 289 (32.8) 42 (31.1)	4 (9.8) 93 (10.6) 19 (14.1)
보육자 직업별	공무원 회사원 상업 농수산업 무직	105 (9.9) 100 (9.5) 393 (37.2) 441 (41.8) 17 (1.6)	20.028	16	0.2190	8 (7.6) 4 (4.0) 13 (3.3) 9 (2.0) 1 (5.9)	22 (21.0) 26 (26.0) 88 (22.4) 81 (18.4) 3 (17.6)	33 (31.4) 32 (32.0) 134 (34.1) 139 (31.5) 4 (23.5)	32 (30.0) 26 (26.0) 120 (30.5) 160 (36.3) 5 (29.4)	10 (9.5) 12 (12.0) 38 (9.7) 52 (11.8) 4 (23.5)

* P<0.05 ** P<0.005 *** P<0.0001

이 좋다는 말에 찬성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5>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매우 찬성한다(3.3%), ② 대체로 찬성한다(20.8%), ③ 다소 반대한다(32.4%), ④ 매우 반대한다(32.5%), ⑤ 잘 모르겠다(11.0%)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는 응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입품을 嗜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산품보다 수입상품의 질이 대체로 좋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宗敎別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불교를 믿는 학생이 他宗敎의 학생들보다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良質이라는 데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시지구 학생이 읍지구 학생보다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양질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良質의 상품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없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농·수산업인 경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원, 공무원이 다른 직업보다 수입품의 품질이 국산품보다 높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4) 高價品에 對한 認識

가격과 질의 비교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격이 비싼 상품은 가격이 싼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6>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그렇다(9.3%), ② 대체로 그렇다(43.8%),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25.6%), ④ 전혀 그렇지 않다(14.8%), ⑤ 잘 모르겠다(6.6%)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 따른 반응은 남학생이 60.1%로 가격이 비싼 상품은 싼 상품보다 양질의 상품이라는 응답을 보인 반면, 여학생인 경우는 48.8%가 그렇

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3>에서 상품을 고를 때 남녀학생 모두 품질을 우선으로 물건을 사겠다는 반응
 을 <표 16>과 연관시켜 본다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高價品의 상품을 사겠다는

〈표 16〉 高價品에 對한 認識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98 (9.3)	462 (43.8)	342 (25.6)	340 (14.8)	70 (6.6)
성 별	남 여	523 (49.5)	48.686	4	*** 0.0000	73 (14.0)	241 (46.1)	105 (20.1)	61 (11.7)	43 (8.2)
		533 (50.5)				25 (4.7)	221 (41.5)	165 (31.0)	95 (17.8)	27 (5.1)
학 년 별	1	344 (32.6)	19.794	8	* 0.0111	27 (7.8)	128 (37.2)	103 (29.9)	67 (19.5)	19 (5.5)
	2	344 (32.6)				35 (10.2)	166 (48.3)	80 (23.3)	38 (11.0)	25 (7.3)
	3	368 (34.8)				36 (9.8)	168 (45.7)	87 (23.6)	51 (13.9)	26 (7.1)
종 교 별	개신교	110 (10.4)	15.461	16	0.4912	8 (7.3)	47 (42.7)	31 (28.2)	20 (18.2)	4 (3.6)
	천주교	143 (13.5)				10 (7.0)	66 (46.2)	38 (26.6)	22 (15.4)	7 (4.9)
	불교	390 (36.9)				39 (10.0)	161 (41.3)	104 (26.7)	59 (15.1)	27 (6.9)
	무교	370 (35.0)				32 (8.6)	170 (45.9)	89 (24.1)	50 (13.5)	29 (7.8)
	기타	43 (4.1)				9 (20.9)	18 (41.9)	8 (18.6)	5 (11.6)	3 (7.6)
거주지 별	시지구	543 (51.4)	10.914	4	* 0.0275	52 (9.6)	262 (48.3)	126 (23.2)	70 (12.9)	33 (6.1)
	읍지구	513 (48.6)				46 (9.0)	200 (39.0)	144 (28.1)	86 (16.8)	37 (7.2)
지역 별 (지역 구분 별)	국	167 (15.8)	12.805	12	0.3833	20 (12.0)	61 (36.5)	48 (28.7)	25 (15.0)	13 (7.8)
	중	251 (23.8)				21 (8.4)	102 (40.6)	65 (25.9)	47 (18.7)	16 (6.4)
	고	520 (49.3)				45 (8.7)	241 (46.3)	134 (25.8)	66 (12.7)	34 (6.5)
	대	117 (11.1)				12 (10.3)	57 (48.7)	23 (19.7)	18 (15.4)	7 (6.0)
경제 적 수 준 별	상류층	41 (3.9)	16.621	8	* 0.0343	9 (22.0)	11 (26.8)	8 (19.5)	11 (26.8)	2 (4.9)
	중류층	880 (83.3)				75 (8.5)	394 (44.8)	226 (25.7)	128 (14.5)	57 (6.5)
	하류층	135 (12.8)				14 (10.4)	57 (42.2)	36 (26.7)	17 (12.6)	11 (8.1)
직업 별	공무원	105 (9.9)	13.234	16	0.6556	8 (7.6)	48 (45.7)	27 (25.7)	15 (14.3)	7 (6.7)
	회사원	100 (9.5)				12 (12.0)	47 (47.0)	26 (26.0)	10 (10.0)	5 (5.0)
	상업	393 (37.2)				40 (10.0)	180 (45.8)	87 (22.1)	63 (16.0)	23 (5.9)
	농수산업	441 (41.8)				37 (8.4)	181 (41.0)	126 (28.6)	63 (14.0)	34 (7.7)
	무직	17 (1.6)				1 (5.9)	6 (35.3)	4 (23.5)	5 (29.4)	1 (5.9)

* $P < 0.05$ *** $P < 0.0001$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年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1학년 학생들은 고가품이 良質이라는데 부정적인 반응(49.4%)을 보이는 반면, 2, 3학년 학생들은 각각 58.5%, 55.5%로 고가품은 양질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읍지구 학생보다 시지구 학생들이 가격이 비싼 상품이 값싼 상품보다 양질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상류층으로 갈수록 高價品이 低價品보다 양질이라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회사원(59.0%), 상업(55.8%), 공무원(53.3%), 농·수산업(49.4%) 순으로 高價品이 低價品보다 양질의 상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무직인 경우는 52.9%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5) 學用品 管理

학용품 관리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용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7>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부모님이 새 것을 사주시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2.1%), ②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찾지 않는다(1.5%), ③ 나 혼자 찾다가 없으면 그만둔다(76.5%), ④ 선생님께 꼭 찾아 달라고 부탁드린다(6.2%), ⑤ 기타(13.7%)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 따른 반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며,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있어서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부모가 대신 사줌으로써 물건을 소중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관리의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學年別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찾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리의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박한 반면, 1학년인 경우 ‘선생님께 꼭 찾아 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응답이 2,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2, 3학년 학생보다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에서는 '혼자 찾다 없으면 그만 둔다'는 입장과 '부모님이 새 것을 사주시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응답은 시지구 학생들의 반응이 높고,

〈표 17〉 學用品 管理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 용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22 (2.1)	16 (1.5)	808 (76.5)	65 (6.2)	145 (13.7)
성	남	523 (49.5)	7.622	4	0.1065	15 (2.9)	10 (1.9)	406 (77.6)	31 (5.9)	61 (11.7)
별	여	533 (50.5)				7 (1.3)	6 (1.1)	402 (75.4)	34 (6.4)	84 (15.8)
학	1	344 (32.6)	19.942	8	0.0106*	7 (2.0)	3 (0.9)	242 (70.3)	30 (8.7)	62 (18.0)
년	2	344 (32.6)				7 (2.0)	4 (1.2)	274 (79.7)	14 (4.1)	45 (13.1)
별	3	368 (34.8)				8 (2.2)	9 (2.4)	292 (79.3)	21 (5.7)	38 (10.3)
종	계	110 (10.4)	17.490	16	0.3546	2 (1.8)	1 (0.9)	90 (81.8)	6 (5.5)	11 (10.0)
교	신	143 (13.5)				3 (2.1)	4 (2.8)	104 (72.7)	9 (6.3)	23 (16.1)
	주	390 (36.9)				9 (2.3)	6 (1.5)	293 (75.1)	27 (6.9)	55 (14.1)
	교	370 (35.0)				5 (1.4)	5 (1.4)	288 (77.8)	18 (4.9)	54 (14.6)
	무	43 (4.1)				3 (7.0)	0 (0.0)	33 (76.7)	5 (11.6)	2 (4.7)
	기									
타										
거	시	543 (51.4)	15.526	4	0.0037**	14 (2.6)	7 (1.3)	438 (80.7)	24 (4.4)	60 (11.0)
주	읍	513 (48.6)				8 (1.6)	9 (1.8)	370 (72.1)	41 (8.0)	85 (16.6)
보	국	167 (15.8)	7.379	12	0.8316	4 (1.6)	1 (0.6)	127 (76.0)	8 (4.8)	27 (16.2)
자	중	251 (23.8)				4 (1.6)	4 (1.6)	185 (73.7)	21 (8.4)	37 (14.7)
	고	520 (49.3)				10 (1.9)	9 (1.7)	405 (77.9)	30 (5.8)	66 (12.7)
	대	117 (11.1)				4 (3.4)	2 (1.7)	91 (77.8)	6 (5.1)	14 (12.0)
전	상	41 (3.9)	23.369	8	0.0029**	2 (4.9)	3 (7.3)	24 (58.5)	3 (7.3)	9 (22.0)
교	중	880 (83.3)				13 (1.5)	12 (1.4)	682 (77.5)	55 (6.3)	118 (13.4)
	하	135 (12.8)				7 (5.2)	1 (0.7)	102 (75.6)	7 (5.2)	18 (13.3)
본	공	105 (9.9)	12.073	16	0.7389	2 (1.9)	3 (2.9)	85 (81.0)	5 (4.8)	10 (9.5)
자	회	100 (9.5)				4 (4.0)	3 (3.0)	70 (70.0)	8 (8.0)	15 (15.0)
	상	393 (37.2)				8 (2.0)	5 (1.3)	301 (76.6)	23 (5.9)	56 (14.2)
	방	441 (41.8)				7 (1.6)	5 (1.1)	339 (76.9)	27 (6.1)	63 (14.3)
	수	17 (1.6)				1 (5.9)	0 (0.0)	13 (76.5)	2 (11.8)	1 (5.9)
	산									
업										
무	직									

* $P < 0.05$ ** $P < 0.005$

'선생님께 찾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는 경우는 읍지구 학생들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찾지 않는다'는 반응과 '나 혼자 찾다가 없으면 그만 둔다'는 반응은 중류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용돈 마련 方法

용돈 마련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떻게 용돈을 마련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8>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51.6%), ② 일주일에 한번 타서 쓴다(16.6%), ③ 한 달에 한번씩 타서 쓴다(20.3%), ④ 내 힘으로 벌어서 쓴다(4.5%), ⑤ 기타(7.0%)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이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쓴다'와 '내 힘으로 벌어서 쓴다'는 반응이 높으며, 여학생은 '필요한 때마다 타서 쓴다'와 '한 달에 한번 타서 쓴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年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고 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쓰고 있음은 물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쓰는 경우는 비슷하나 읍지구 학생들이 시지구 학생들보다 필요할 때마다 또는 한 달에 한번 타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지구 학생들이 읍지구 학생들보다 한 달에 한번씩 용돈을 타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제외) 필요한 때마다 용돈을 타서 쓰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국졸 제외) 한 달에 한번씩 용돈을 타 쓰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용돈을 벌어서 쓰는 경우는 국졸인 경우가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으로

〈표 18〉 응돈 마련 方法

변인	변인 구분	변인 수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545 (51.6)	175 (16.6)	214 (20.3)	48 (4.5)	74 (7.0)
성별	남	523 (49.5)	19.197	4	*** 0.0007	254 (48.6)	96 (18.4)	96 (18.4)	36 (6.9)	41 (7.8)
성별	여	533 (50.5)				291 (54.6)	79 (14.8)	118 (22.1)	12 (2.3)	33 (6.2)
학년	1	344 (32.6)	15.673	8	* 0.0473	162 (47.1)	64 (18.6)	66 (19.2)	21 (6.1)	31 (9.0)
학년	2	344 (32.6)				169 (49.1)	60 (17.4)	78 (22.7)	16 (4.7)	21 (6.1)
학년	3	368 (34.8)				214 (58.2)	51 (13.9)	70 (19.0)	11 (3.0)	22 (6.0)
종교	개신교	110 (10.4)	24.268	16	0.0838	56 (50.9)	14 (12.7)	29 (26.4)	3 (2.7)	8 (7.6)
종교	천주교	143 (13.5)				67 (46.9)	25 (17.5)	37 (25.9)	4 (2.8)	10 (7.0)
종교	불교	390 (36.9)				206 (52.8)	71 (18.2)	71 (18.2)	20 (5.1)	22 (5.6)
종교	무교	370 (35.0)				198 (53.5)	59 (15.9)	70 (18.9)	15 (4.1)	28 (7.6)
종교	기타	43 (4.1)				18 (41.9)	6 (14.0)	7 (16.3)	6 (14.0)	6 (14.0)
거주지역	시지구	543 (51.4)	43.920	4	**** 0.0000	241 (44.4)	92 (16.9)	151 (27.8)	21 (3.9)	38 (7.0)
거주지역	읍지구	513 (48.6)				304 (59.3)	83 (16.2)	63 (12.3)	27 (5.3)	36 (7.0)
직업	국졸	167 (15.8)	31.341	12	** 0.0017	80 (47.9)	21 (12.6)	34 (20.4)	17 (10.2)	15 (9.0)
직업	중졸	251 (23.8)				142 (56.6)	44 (17.5)	39 (15.5)	6 (2.4)	20 (8.0)
직업	고졸	520 (49.3)				274 (52.7)	91 (17.5)	107 (20.6)	20 (3.8)	28 (5.4)
직업	대졸	117 (11.1)				49 (41.9)	19 (16.2)	33 (28.2)	5 (4.3)	11 (9.4)
계층	상류층	41 (3.9)	16.387	8	* 0.0372	22 (53.7)	7 (17.1)	6 (14.6)	2 (4.9)	4 (9.8)
계층	중류층	880 (83.3)				461 (52.4)	151 (17.2)	178 (20.2)	32 (3.6)	58 (6.6)
계층	하류층	135 (12.8)				62 (45.9)	17 (12.6)	30 (22.2)	14 (10.4)	12 (8.9)
보호자	공무원	105 (9.9)	40.193	16	*** 0.0007	48 (45.7)	11 (10.5)	34 (32.4)	8 (7.6)	4 (3.8)
보호자	회사원	100 (9.5)				45 (45.0)	19 (19.0)	28 (28.0)	1 (1.0)	7 (7.0)
보호자	상업	393 (37.2)				184 (46.8)	71 (18.1)	86 (21.9)	16 (4.1)	36 (9.2)
보호자	농수산업	441 (41.8)				259 (58.7)	71 (16.1)	63 (14.3)	22 (5.0)	26 (5.9)
보호자	무직	17 (1.6)				9 (52.9)	3 (17.6)	3 (17.6)	1 (5.9)	1 (5.9)

* P<0.05 ** P<0.005 *** P<0.001 **** P<0.0001

갈수록 '필요할 때마다'에 높은 반응을, '한 달에 한번'과 '내 힘으로'는 하류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P<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0.001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필요할 때마다' 타

서 쓴다'는 경우는 농·수산업, 無職, 상업, 공무원, 회사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쓰는 경우는 회사원, 상업, 농·수산업, 무직, 공무원의 순으로, 한 달에 한번씩 타서 쓰는 경우는 공무원, 회사원, 상업, 無職, 농·수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 힘으로 용돈을 벌어서 쓴다'는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가 가장 높게, 회사원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7) 용돈 支出 實態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달 용돈의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1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3,000원 미만(21.3%), ② 3,000원 ~ 5,000원 미만(19.1%), ③ 5,000원 ~ 8,000원 미만(15.4%), ④ 8,000원 ~ 10,000원 미만(16.3%), ⑤ 10,000원 이상(27.4%)으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없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용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로 볼 때 $P < 0.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용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학년인 경우는 한 달 용돈으로 3,000원 미만이 28.2%로 가장 많고, 2, 3학년인 경우는 각각 25.9%, 36.1%가 10,000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가 타 종교의 학생들보다 3,000원 미만이 30.0%로 가장 적은 용돈을 쓰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시지구 학생들이 읍지구 학생들보다 더 많은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한 달 용돈으로 10,000원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한 달 용돈 3,000원 미만은 하류층이 가장 많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10,000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계층과 용돈의 금액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표 19〉 용돈 支出 實態

연인	연인 구분	연인 부성비 (%)	x ²	df	유의도	반 용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230 (21.3)	202 (19.1)	163 (15.4)	172 (16.3)	289 (27.4)
성	남	523 (49.5)	7.266	4	0.1225	120 (22.9)	111 (21.2)	78 (14.9)	72 (13.8)	142 (27.2)
별	여	533 (50.5)				110 (20.6)	91 (17.1)	85 (15.9)	100 (18.8)	147 (27.6)
학	1	344 (32.6)	34.290	8	0.0000	97 (28.2)	67 (19.5)	59 (17.2)	54 (15.7)	67 (19.5)
년	2	344 (32.6)				65 (18.9)	74 (21.5)	59 (17.2)	57 (16.6)	89 (25.9)
별	3	368 (34.8)				68 (18.5)	61 (16.6)	45 (12.2)	61 (16.6)	133 (36.1)
종	개신교	110 (10.4)	22.416	16	0.1302	33 (30.0)	16 (14.5)	24 (21.8)	11 (10.0)	26 (23.6)
교	천주교	143 (13.5)				30 (21.0)	24 (16.8)	27 (18.9)	18 (12.6)	44 (30.8)
별	불교	390 (36.9)				74 (19.0)	84 (21.5)	56 (14.4)	67 (17.2)	109 (27.9)
	무교	370 (35.0)				81 (21.9)	71 (19.2)	53 (14.3)	69 (18.6)	96 (25.9)
	기타	43 (4.1)				12 (27.9)	7 (16.3)	3 (7.0)	7 (16.3)	14 (32.6)
거	시지구	543 (51.4)				16.404	4	0.0025	112 (20.6)	91 (16.8)
주	읍지구	513 (48.6)	118 (23.0)	111 (21.6)	76 (14.8)				94 (18.3)	114 (22.2)
직	국	167 (15.8)	19.763	12	0.0717	44 (26.3)	31 (18.6)	33 (19.8)	27 (16.2)	32 (19.2)
업	중	251 (23.8)				55 (21.9)	51 (20.3)	42 (16.7)	36 (14.3)	67 (26.7)
별	고	520 (49.3)				103 (19.8)	101 (19.4)	66 (12.7)	97 (18.7)	153 (29.4)
	대	117 (11.1)				27 (23.1)	19 (16.2)	22 (18.8)	12 (10.3)	37 (31.6)
직	상류층	41 (3.9)	17.354	8	0.0266	11 (26.8)	3 (7.3)	5 (12.2)	4 (9.8)	18 (43.9)
업	중류층	880 (83.3)				178 (20.2)	172 (19.5)	139 (15.8)	148 (16.8)	243 (27.6)
별	하류층	135 (12.8)				41 (30.4)	27 (20.0)	19 (14.1)	20 (14.8)	28 (20.7)
직	공무원	105 (9.9)	21.004	16	0.1784	28 (26.7)	15 (14.3)	22 (21.0)	9 (8.6)	31 (29.5)
업	회사원	100 (9.5)				14 (14.0)	19 (19.0)	21 (21.0)	19 (19.0)	27 (27.0)
별	상업	393 (37.2)				83 (21.1)	73 (18.6)	51 (13.0)	67 (17.0)	119 (30.3)
	농수산업	441 (41.8)				99 (22.4)	92 (20.9)	67 (15.2)	74 (16.8)	109 (24.7)
	무직	17 (1.6)				6 (35.3)	3 (17.6)	2 (11.8)	3 (17.6)	3 (17.6)

* P<0.05 ** P<0.005 *** P<0.0001

않으나 무직을 제외하고는 10,000원 이상을 한 달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5%이상 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상업이 가장 많고, 無職인 경우는 한 달 용돈 3,000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貯蓄觀

貯蓄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축의 목적, 한달 저축액, 저축의 필요성, 저축 增大策의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貯蓄의 目的

학생들이 저축하는 목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용돈 중에서 저축하는 돈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한번에 사기 힘든 것을 사려고(15.9%), ② 상급 학교 진학에 보탬 예정으로(9.5%), ③ 부모님이나 형제의 선물을 사려고(8.3%), ④ 급한 경우에 대비해서(54.7%), ⑤ 기타(11.6%)로 나타났다. 저축의 목적은 ‘급한 경우에 대비해서’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번에 사기 힘든 것을 사려고’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이 저축하는 이유를 ‘급한 경우에 대비해서’(53.7%), ‘한번에 사기 힘든 것을 사려고’(21.0%)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인 경우 ‘급한 경우에 대비해서’(55.7%), ‘기타’(12.4%), ‘상급 학교 진학 때 보탬 예정으로’(11.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은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에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여학생은 상급 학교 진학 때 보탬 목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年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번에 사기 힘든 물건을 사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宗敎別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의의 있는 차이는 없으나 불교인 경우 타종교보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선물을 사려고 저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 < 0.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상급 학교 진학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경우가 시지구(5.9%) 보다 읍지구 학

〈표 20〉貯蓄의 目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수비 (%)	r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168 (15.9)	100 (9.5)	88 (8.3)	578 (54.7)	122 (11.6)
성별	남	523 (49.5)	24.187	4	*** 0.0001	110 (21.0)	41 (7.8)	35 (6.7)	281 (53.7)	56 (10.7)
		533 (50.5)				58 (10.9)	59 (11.1)	53 (9.9)	297 (55.7)	65 (12.4)
학년별	1	344 (32.6)	16.977	8	* 0.0303	42 (12.2)	28 (8.1)	30 (8.7)	208 (60.5)	36 (10.5)
	2	344 (32.6)				60 (17.4)	39 (11.3)	35 (10.2)	177 (51.5)	33 (9.6)
	3	368 (34.8)				65 (17.9)	33 (9.0)	23 (6.3)	193 (52.4)	53 (14.4)
종교별	개신교	110 (10.4)	15.380	16	0.4970	19 (17.3)	13 (11.8)	8 (7.3)	55 (50.0)	15 (13.6)
	천주교	143 (13.5)				25 (17.5)	14 (9.8)	8 (5.6)	82 (57.3)	14 (9.8)
	불교	390 (36.9)				50 (12.8)	33 (8.5)	43 (11.0)	223 (57.2)	41 (10.5)
	무교	370 (35.0)				67 (18.1)	37 (10.0)	26 (7.0)	196 (53.0)	44 (11.9)
	기타	43 (4.1)				7 (16.3)	3 (7.0)	3 (7.0)	22 (51.2)	8 (18.6)
거주지역별	시지구	543 (51.4)	20.608	4	*** 0.0004	101 (18.6)	32 (5.9)	45 (8.3)	304 (56.0)	61 (11.2)
	읍지구	513 (48.6)				67 (13.1)	68 (13.3)	43 (8.4)	274 (53.4)	61 (11.9)
보육형태별	국립	167 (15.8)	13.336	12	0.3451	25 (15.0)	17 (10.2)	13 (7.8)	87 (52.1)	25 (15.0)
	중립	251 (23.8)				37 (14.7)	22 (8.8)	18 (7.2)	144 (57.4)	30 (12.0)
	고립	520 (49.3)				85 (16.3)	52 (10.0)	46 (8.8)	291 (56.0)	46 (8.8)
	대립	117 (11.1)				21 (17.9)	9 (7.7)	11 (9.4)	55 (47.0)	21 (17.9)
경제수준별	상류층	41 (3.9)	9.740	8	0.2838	5 (12.2)	4 (9.8)	7 (17.1)	20 (48.8)	5 (12.2)
	중류층	880 (83.3)				137 (15.6)	78 (8.9)	69 (7.8)	492 (55.9)	104 (11.8)
	하류층	135 (12.8)				26 (19.3)	18 (13.3)	12 (8.9)	66 (48.9)	13 (9.6)
직업별	공무원	105 (9.9)	7.849	16	0.9532	20 (19.0)	8 (7.6)	9 (8.6)	54 (51.4)	14 (13.3)
	회사원	100 (9.5)				20 (20.0)	9 (9.0)	9 (9.0)	54 (54.0)	8 (8.0)
	상업	393 (37.2)				64 (16.3)	33 (8.4)	32 (8.1)	217 (55.2)	47 (12.0)
	농수산업	441 (41.8)				60 (13.6)	48 (10.9)	37 (8.4)	245 (55.6)	51 (11.6)
	무직	17 (1.6)				4 (23.5)	2 (11.8)	1 (5.9)	8 (47.1)	2 (11.8)

* P<0.05 *** P<0.0005

생들이(13.3%) 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하류층으로 갈수록 '한번에 사기 힘든 물건을 사기위해',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에 대비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 달 貯蓄額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달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

<표 21> 한 달 貯蓄額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314 (29.7)	357 (33.8)	147 (13.9)	120 (11.4)	118 (11.2)
성	남	523 (49.5)	17.978	4	0.0012	184 (35.2)	157 (30.0)	63 (12.0)	63 (12.0)	56 (10.7)
별	여	533 (50.5)				130 (24.0)	200 (37.5)	84 (15.8)	57 (10.7)	62 (11.6)
학	1	344 (32.6)	85.047	8	0.0000	58 (16.9)	126 (36.6)	54 (15.7)	51 (14.8)	55 (16.0)
	2	344 (32.6)				88 (25.6)	126 (36.6)	60 (17.4)	34 (9.9)	36 (10.5)
	3	368 (34.8)				168 (45.7)	105 (28.5)	33 (9.0)	35 (9.5)	27 (7.3)
종	개신교	110 (10.4)	20.901	16	0.1823	33 (30.0)	45 (40.9)	14 (12.7)	7 (6.4)	11 (10.0)
	천주교	143 (13.5)				39 (27.3)	51 (35.7)	18 (12.6)	16 (11.2)	19 (13.3)
	불교	390 (36.9)				107 (27.4)	119 (30.5)	67 (17.2)	44 (11.3)	53 (13.6)
	무교	370 (35.0)				120 (32.4)	129 (34.9)	43 (11.6)	49 (13.2)	29 (7.8)
	기타	43 (4.1)				15 (34.9)	13 (30.2)	5 (11.6)	4 (9.3)	6 (14.0)
거주지역	시지구	543 (51.4)	1.837	4	0.7657	158 (29.1)	192 (35.4)	77 (14.2)	57 (10.5)	59 (10.9)
	읍지구	513 (48.6)				156 (30.4)	165 (32.2)	70 (13.6)	63 (12.3)	59 (11.5)
본인직업	국졸	167 (15.8)	12.415	12	0.4130	50 (29.9)	54 (32.3)	27 (16.2)	17 (10.2)	19 (11.4)
	중졸	251 (23.8)				60 (23.9)	97 (38.6)	34 (13.5)	27 (10.8)	33 (13.1)
	고졸	520 (49.3)				165 (31.7)	173 (33.3)	72 (13.8)	61 (11.7)	49 (9.4)
	대졸	117 (11.1)				39 (33.3)	32 (27.4)	14 (12.0)	15 (12.8)	17 (14.5)
소득수준	상류층	41 (3.9)	7.068	8	0.5293	14 (34.1)	14 (34.1)	8 (19.8)	1 (2.4)	4 (9.8)
	중류층	880 (83.3)				256 (29.1)	294 (33.4)	122 (13.9)	108 (12.3)	100 (11.4)
	하류층	135 (12.8)				44 (32.6)	49 (36.3)	17 (12.6)	11 (8.1)	14 (10.4)
본인직업	공무원	105 (9.9)	11.836	16	0.7552	25 (23.8)	44 (41.9)	15 (14.3)	9 (8.6)	12 (11.4)
	회사원	100 (9.5)				36 (36.0)	29 (29.0)	14 (14.0)	12 (12.0)	9 (9.0)
	상업	393 (37.2)				117 (29.8)	123 (31.3)	59 (15.0)	47 (12.0)	47 (12.0)
	농수산업	441 (41.8)				131 (29.7)	157 (35.6)	55 (12.5)	51 (11.6)	47 (10.7)
	무직	17 (1.6)				5 (29.4)	4 (23.5)	4 (23.5)	1 (5.9)	3 (17.6)

* P<0.005 *** P<0.0001

적인 응답은 ① 없음(29.7%), ② 3,000원 미만(33.8%), ③ 3,000원 - 5,000원 미만(13.9%), ④ 5,000원 - 10,000원 미만(11.4%), ⑤ 10,000원 이상(11.2%)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안하거나 3,000원 미만인 경우가 63.5%인 것을 보면, 이것은 <표 19>의 한 달 용돈 지출 실태에서 43.7%가 8,000원 이상을 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저축보다 消費傾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이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35.2%, 3,000원 미만이 30.0%로 거의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여학생이 '없음'이 24.0%, '3,000원 미만'이 37.5%로 남학생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보이며,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19>의 한 달 용돈 사용 금액과 비교해 볼 때, 한 달 8,000원 이상을 용돈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남학생 41.0%, 여학생 46.4%인데 한 달 저축액 5,000원 이상이 남학생 22.7%, 여학생 22.3%로 한 달 용돈의 반 이상이 저축이 아닌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學年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축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宗教別, 居住地別, 보호자 敎育程度別, 경제적 階層別,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高學歷者인 경우와 상류층과 하류층, 회사원인 경우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貯蓄의 必要性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축은 왜 해야 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2>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보다 잘 살기 위해(10.5%), ② 안정된 생활을 위해(64.0%), ③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5.8%), ④ 저축도 일종의 投資이기 때문에(14.0%), ⑤ 기타(5.7%)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남학생은 저축의 필요성을 '안정된 생활을 위해'(58.9%), '저축도 일

종의 투자기 때문에'(17.6%)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69.0%), '보다 잘 살기 위해'(10.7%)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저축을 투자의 가치로 인정하는 반응이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저축

〈표 22〉 貯蓄의 必要性

변인	변인 구분	변인 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111 (10.5)	676 (64.0)	61 (5.8)	148 (14.0)	60 (5.7)
성별	남	523 (49.5)	21.567	4	0.0002	54 (10.3)	308 (58.9)	41 (7.8)	92 (17.6)	28 (5.4)
		533 (50.5)				57 (10.7)	368 (69.0)	20 (3.8)	56 (10.5)	32 (6.0)
학년	1	344 (32.6)	22.914	8	0.0035	30 (8.7)	219 (63.7)	29 (8.4)	45 (13.1)	21 (6.1)
	2	344 (32.6)				50 (14.5)	217 (63.1)	15 (4.4)	38 (11.0)	24 (7.0)
	3	368 (34.8)				31 (8.4)	240 (65.2)	17 (4.6)	65 (17.7)	15 (4.1)
종교	개신교	110 (10.4)	23.988	16	0.0700	12 (10.9)	73 (66.4)	7 (6.4)	12 (10.9)	6 (5.5)
	천주교	143 (13.5)				18 (12.6)	101 (70.6)	4 (2.8)	18 (12.6)	2 (1.4)
	불교	390 (36.9)				37 (9.5)	239 (61.3)	26 (6.7)	64 (16.4)	24 (6.2)
	무교	370 (35.0)				40 (10.8)	242 (65.4)	18 (4.9)	44 (11.9)	26 (7.0)
	기타	43 (4.1)				4 (9.3)	21 (48.8)	6 (14.0)	10 (23.3)	2 (4.7)
거주지역	시지구	543 (51.4)	8.155	4	0.0861	56 (10.3)	359 (66.1)	32 (5.9)	61 (11.2)	35 (6.4)
	읍지구	513 (48.6)				55 (10.7)	317 (61.8)	29 (5.7)	87 (17.0)	25 (4.9)
부모의 직업	직업	167 (15.8)	15.191	12	0.2311	18 (10.8)	109 (65.3)	3 (1.8)	28 (16.8)	9 (5.4)
	농업	251 (23.8)				20 (8.0)	162 (64.5)	18 (7.2)	32 (12.7)	19 (7.6)
	고졸	520 (49.3)				56 (10.8)	331 (63.7)	30 (5.8)	76 (14.6)	27 (5.2)
	대졸	117 (11.1)				17 (14.5)	73 (62.4)	10 (8.5)	12 (10.3)	5 (4.3)
부모의 소득	상류층	41 (3.9)	35.015	8	0.0000	4 (9.8)	12 (29.3)	4 (9.8)	15 (36.6)	6 (14.6)
	중류층	880 (83.3)				92 (10.5)	583 (66.3)	49 (5.6)	108 (12.3)	48 (5.5)
	하류층	135 (12.8)				15 (11.1)	81 (60.0)	8 (5.9)	25 (18.5)	6 (4.4)
부모의 직업	공무원	105 (9.9)	25.612	16	0.0597	11 (1.5)	64 (61.0)	11 (10.5)	10 (9.5)	9 (8.6)
	회사원	100 (9.5)				6 (6.0)	66 (66.0)	11 (11.0)	11 (11.0)	6 (6.0)
	상업	393 (37.2)				40 (10.2)	257 (65.4)	17 (4.3)	59 (15.0)	20 (5.1)
	수산업	441 (41.8)				53 (12.0)	280 (63.5)	21 (4.8)	62 (14.1)	25 (5.7)
	무직	17 (1.6)				1 (5.9)	9 (52.9)	1 (5.9)	6 (35.3)	0 (0.0)

* P<0.005 ** P<0.0005 *** P<0.0001

을 안정된 생활과 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學年別에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타 학년 학생들보다 1학년 학생들은 저축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고, 2학년 학생들은 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저축을 한다는 반응이 높고, 3학년 학생들은 저축을 안정된 생활과 투자 가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宗教別로는 천주교 학생들이 저축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기타 종교의 학생이 국가 발전과 투자 가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시지구 학생이 읍지구 학생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하류층으로 갈수록 저축을 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류층은 일종의 投資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4) 貯蓄 增大策

貯蓄 增大策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3>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물가를 안정시킨다(35.5%), ② 은행 이자를 무조건 높인다(5.4%), ③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한다(2.9%), ④ 경제 교육을 잘 시켜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53.8%), ⑤ 기타(2.4%)로 나타났다. 여기서 貯蓄 增大策으로는 교육적 효과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가 안정을 꼽고 있어, 꾸준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높게,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은행 이자를 높인다’는 남학생이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저학년일수록 ‘경제교육을 잘 시켜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高學年일수록 ‘은행의 이자를 무조건 높인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低學年일수록 저축 증대

〈표 23〉貯蓄 増大策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357 (35.5)	57 (5.4)	31 (2.9)	568 (53.8)	25 (2.4)
성별	남	523 (49.5)	12.971	4	0.0114 *	162 (31.0)	36 (6.9)	18 (3.4)	296 (56.6)	11 (2.1)
	여	533 (50.5)				213 (40.0)	21 (3.9)	13 (2.4)	272 (51.0)	14 (2.6)
학년별	1	344 (32.6)	26.020	8	0.0010 **	107 (31.1)	11 (3.2)	8 (2.3)	204 (59.3)	14 (4.1)
	2	344 (32.6)				137 (39.8)	15 (4.4)	8 (2.3)	177 (51.5)	7 (2.0)
	3	368 (34.8)				131 (35.6)	31 (8.4)	15 (4.1)	187 (50.8)	4 (1.1)
종교별	개신교	110 (10.4)	18.481	16	0.2965	38 (34.5)	8 (7.3)	5 (4.5)	57 (51.8)	2 (1.8)
	천주교	143 (13.5)				56 (39.2)	6 (4.2)	4 (2.8)	75 (52.4)	2 (1.4)
	불교	390 (36.9)				151 (38.7)	25 (6.4)	9 (2.3)	196 (50.3)	9 (2.3)
	무교	370 (35.0)				115 (31.1)	13 (3.5)	13 (3.5)	218 (58.9)	11 (3.0)
	기타	43 (4.1)				15 (34.9)	5 (11.6)	0 (0.0)	22 (51.2)	1 (2.3)
거주지별	시지구	543 (51.4)	11.536	4	0.0212 *	214 (39.4)	30 (5.5)	19 (3.5)	271 (49.9)	9 (1.7)
	읍지구	513 (48.6)				161 (31.4)	27 (5.3)	12 (2.3)	297 (57.9)	16 (3.1)
거주지역별	국	167 (15.8)	11.915	12	0.4525	62 (37.1)	10 (6.0)	7 (4.2)	82 (49.1)	6 (3.6)
	중	251 (23.8)				94 (37.5)	8 (3.2)	7 (2.8)	134 (53.4)	8 (3.2)
	고	520 (49.3)				176 (33.8)	35 (6.7)	12 (2.3)	288 (55.4)	9 (1.7)
	대	117 (11.1)				43 (36.8)	4 (3.4)	5 (4.3)	63 (53.8)	2 (1.7)
직업별	상류층	41 (3.9)	13.660	8	0.0911	16 (39.0)	5 (12.2)	0 (0.0)	18 (43.9)	2 (4.9)
	중류층	880 (83.3)				317 (36.0)	42 (4.8)	23 (2.6)	478 (54.3)	20 (2.3)
	하류층	135 (12.8)				42 (31.1)	10 (7.4)	8 (5.9)	72 (53.3)	3 (2.2)
직업별	공무원	105 (9.9)	15.993	16	0.4535	38 (36.2)	10 (9.5)	5 (4.8)	52 (49.5)	0 (0.0)
	회사원	100 (9.5)				42 (42.0)	4 (4.0)	1 (1.0)	50 (50.0)	3 (3.0)
	상업	393 (37.2)				141 (35.9)	17 (4.3)	9 (2.3)	216 (55.0)	10 (2.5)
	농수산업	441 (41.8)				149 (33.8)	24 (5.4)	15 (3.4)	242 (54.9)	11 (2.5)
	무직	17 (1.6)				5 (29.4)	2 (11.8)	1 (5.9)	8 (47.1)	1 (5.9)

* P<0.05 ** P<0.005

책으로 교육적인 효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시지구 학생들은 읍지구 학생들 보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반응이 높고, 읍지구 학생들은 '경제 교육을 잘 시켜 저축의 필

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 職業別,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는 없으나, 상류층으로 갈수록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반응이 높으며, 하류층으로 갈수록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이 더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國民經濟觀

國民 經濟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곤의 책임, 우리 나라 미래 경제, 못 사는 이유, 농산물 수입, 경제적 성공 요인 등 5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貧困의 責任

貧困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과거 2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으면서도 아직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4>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집안 배경 및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15.7%), ② 기회를 못 만나서(21.2%), ③ 게으르기 때문에(19.6%), ④ 학식이 없고 학벌이 없어서(19.9%), ⑤ 기타(23.6%)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은 '기회를 못 만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높으며, 여학생은 '기타와 학식이 없고 학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여학생이 더 학벌이 경제적인 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學年別에서 볼 때 $P < 0.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낮을수록 '학식이 없고 학벌이 없어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집안 배경과 물려 받은 재산이 없거나, 기회를 못 만나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低學年은 빈곤의 책임을 학벌로 돌리고 있고, 高學年은 집안 배경과 기회 탓

〈표 24〉 貧困의 責任

변인	변인구분	변인수비(%)	χ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166 (15.7)	224 (21.2)	207 (19.6)	210 (19.9)	249 (23.6)
성별	남	523 (49.5)	35.653	4	*** 0.0000	83 (15.9)	116 (22.2)	135 (25.8)	94 (18.0)	95 (18.2)
		533 (50.5)				83 (15.6)	108 (20.3)	72 (13.5)	116 (21.8)	154 (28.9)
학년	1	344 (32.6)	30.882	8	** 0.0001	48 (14.0)	51 (14.8)	81 (23.5)	81 (23.5)	83 (24.1)
	2	344 (32.6)				58 (16.9)	72 (20.9)	53 (15.4)	78 (22.7)	83 (24.1)
	3	368 (34.8)				60 (16.3)	101 (27.4)	73 (19.8)	51 (13.9)	83 (22.6)
종교	개신교	110 (10.4)	30.806	16	* 0.0142	17 (15.5)	19 (17.3)	19 (17.3)	34 (30.9)	21 (19.1)
	천주교	143 (13.5)				25 (17.5)	23 (16.1)	22 (15.4)	26 (18.2)	47 (32.9)
	불교	390 (36.9)				60 (15.4)	80 (20.5)	86 (22.1)	81 (20.8)	83 (21.3)
	무교	370 (35.0)				59 (15.9)	93 (25.1)	68 (18.4)	58 (15.7)	92 (24.9)
	기타	43 (4.1)				5 (11.6)	9 (20.9)	12 (27.9)	11 (25.6)	6 (14.0)
거주지역	시지구	543 (51.4)	7.577	4	* 0.0108	73 (13.4)	129 (23.8)	110 (20.3)	105 (19.3)	126 (23.2)
	읍지구	513 (48.6)				93 (18.1)	95 (18.5)	97 (18.9)	105 (20.5)	123 (24.0)
직업(1차/2차/3차)	국공	167 (15.8)	24.636	12	* 0.0166	33 (19.8)	26 (15.6)	28 (16.8)	38 (22.8)	42 (25.1)
	중고	251 (23.8)				35 (13.9)	46 (18.3)	46 (18.3)	70 (27.9)	54 (21.5)
	대중	520 (49.3)				80 (15.4)	126 (24.2)	106 (20.4)	86 (16.5)	122 (23.5)
	대중	117 (11.1)				18 (15.4)	26 (22.2)	27 (23.1)	16 (13.7)	30 (25.6)
종교(종교성향)	상류층	41 (3.9)	5.661	8	0.6852	7 (17.1)	10 (24.4)	8 (19.5)	9 (22.0)	7 (17.1)
	중류층	880 (83.3)				132 (15.0)	192 (21.8)	176 (20.0)	171 (19.4)	209 (23.8)
	하류층	135 (12.8)				27 (20.0)	22 (16.3)	23 (17.0)	30 (22.2)	33 (24.4)
직업(직업성향)	공무원	105 (9.9)	15.741	16	0.4712	11 (10.5)	25 (23.8)	26 (24.8)	19 (18.1)	24 (22.9)
	회사원	100 (9.5)				8 (8.0)	24 (24.0)	21 (21.0)	22 (22.0)	25 (25.0)
	상업	393 (37.2)				60 (15.3)	86 (21.9)	72 (18.3)	74 (18.8)	101 (25.7)
	농수산업	441 (41.8)				84 (19.0)	86 (19.5)	83 (18.8)	92 (20.9)	96 (21.8)
무직	17 (1.6)	3 (17.6)	3 (17.6)	5 (29.4)	3 (17.6)	3 (17.6)				

* P<0.05 ** P<0.0005 *** P<0.0001

으로 돌리고 있다. 宗敎別로는 개신교 계통에서 학벌 탓으로, 불교는 계층 탓으로, 無敎인 경우는 기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P<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시지구 학생들은 빈곤의 책임을 '계으름과 기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읍지구 학생들은 '집안 배경 및 물려 받은 재산과 학벌이 없어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읍지구 학생들의 가난을 보는 시각은 시지구 학생들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계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低學歷인 경우(국·중졸)에는 고학력인 경우(고·대졸) 보다 학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低學歷者의 자녀들이 학력에 대한 차별 대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상류층일수록 '기회를 못 만나서' 가난하다는 반응이 높고, 하류층인 경우는 '집안 배경 및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없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공무원과 無職이 '계으르기 때문에', 회사원과 상업이 '기회를 못 만나서', 농·수산업이 '학식이나 학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未來 經濟

우리 나라 미래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5>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22.3%), ②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31.0%),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12.4%), ④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25.7%), ⑤ 지금보다 대단히 나빠질 것이다(8.6%)로 나타났다. <표 25>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 경제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인 반응도 34.3%나 되고 있다.

背景要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남학생이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9.1%,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32.7%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학생은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가 15.8%,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

〈표 25〉 우리 나라의 未來 經濟에 對한 展望

변인	변인 구분	변인 비율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236 (22.3)	327 (31.0)	131 (12.4)	271 (25.7)	91 (8.6)
성	별	523 (49.5) 533 (50.5)	38.111	4	*** 0.0000	152 (29.1) 84 (15.8)	171 (32.7) 156 (29.3)	56 (10.7) 75 (14.1)	107 (20.5) 164 (30.8)	37 (7.1) 54 (10.1)
학	년	344 (32.6) 344 (32.6) 368 (34.8)	6.937	8	0.5434	85 (24.7) 73 (21.2) 78 (21.2)	105 (30.5) 99 (28.8) 123 (33.4)	36 (10.5) 49 (14.2) 46 (12.5)	88 (25.6) 97 (28.2) 86 (23.4)	30 (8.7) 26 (7.6) 35 (9.5)
종	교	110 (10.4) 143 (13.5) 390 (36.9) 370 (35.0) 43 (4.1)	35.385	16	** 0.0035	18 (16.4) 39 (27.3) 93 (23.8) 71 (19.2) 15 (34.9)	40 (36.4) 28 (19.6) 127 (32.6) 124 (33.5) 8 (18.6)	11 (10.0) 16 (11.2) 49 (12.6) 47 (12.7) 8 (18.6)	31 (28.2) 41 (28.7) 99 (25.4) 95 (25.7) 5 (11.5)	10 (9.1) 19 (13.3) 22 (5.6) 33 (8.9) 7 (16.3)
거	지	543 (51.4) 513 (48.6)	3.453	4	0.4851	118 (21.7) 118 (23.0)	158 (29.1) 169 (32.9)	74 (13.6) 57 (11.1)	146 (26.9) 125 (24.4)	47 (8.7) 44 (8.6)
고	출	167 (15.8) 251 (23.8) 520 (49.3) 117 (11.1)	14.726	12	0.2568	39 (23.4) 57 (22.7) 114 (21.9) 26 (22.20)	57 (34.1) 80 (31.9) 164 (31.5) 25 (21.4)	16 (9.6) 28 (11.2) 74 (14.2) 13 (11.1)	37 (22.2) 66 (26.3) 130 (25.0) 38 (32.5)	18 (10.8) 20 (8.0) 38 (7.3) 15 (12.8)
직	종	41 (3.9) 880 (83.3) 135 (12.8)	10.278	8	0.2460	12 (29.3) 202 (23.0) 22 (16.3)	9 (22.0) 273 (31.0) 45 (33.3)	3 (7.3) 108 (12.3) 20 (14.8)	11 (26.8) 228 (25.9) 32 (23.7)	6 (14.6) 69 (7.8) 16 (11.9)
자	업	105 (9.9) 100 (9.5) 393 (37.2) 441 (41.8) 17 (1.6)	17.130	16	0.3773	29 (27.6) 24 (24.0) 88 (22.4) 90 (20.4) 5 (29.4)	32 (30.5) 27 (27.0) 111 (28.2) 151 (34.2) 6 (35.3)	12 (11.4) 11 (11.0) 57 (14.5) 51 (11.6) 0 (0.0)	21 (20.0) 28 (28.0) 112 (28.5) 105 (23.8) 5 (29.4)	11 (10.5) 10 (10.0) 25 (6.4) 44 (10.0) 1 (5.9)

** P<0.005 *** P<0.0001

이다'가 29.3%인 반면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30.8%, '지금보다 대단히 나빠질 것이다'가 10.1%로 응답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인다. 宗教別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불교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천주교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教育程度別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반응을,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3) 못 사는 理由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잘 못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6>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집안 배경이 없어서(11.8%), ②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6.8%), ③ 기회를 못만나서(29.3%), ④ 게으르기 때문에(35.8%), ⑤ 학식, 학벌이 없어서(16.2%)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남학생이 높고, '학식, 학벌이 없어서'라는 반응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로는 低學年일수록 자신의 탓으로, 高學年일수록 남의 탓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P < 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宗教別, 居住地別, 보호자 教育程度別, 職業別에서는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居住地別에서 '기회를 못만나서' 가난하다는 반응은 읍지구 학생보다 시지구 학생들이,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라는 반응은 시지구 학생보다 읍지구 학생들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하류층으로 갈수록 '학식, 학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農產物 輸入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산물 수입에 대한 생각은 어떻

〈표 26〉 못 사는 理由

변인	변인 구분	빈도 (%)	χ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56 (100)				125 (11.8)	72 (6.8)	309 (29.3)	378 (35.8)	171 (16.2)
성별	남여	523 (49.5)	22.771	4	0.0001**	58 (11.1)	34 (6.5)	151 (28.9)	218 (41.7)	62 (11.9)
		533 (50.5)				67 (12.6)	38 (7.1)	158 (29.7)	160 (30.1)	109 (20.5)
학년	1	344 (32.6)	41.904	8	0.0000***	40 (11.7)	15 (4.4)	72 (21.0)	145 (42.3)	71 (20.7)
	2	344 (32.6)				39 (11.3)	27 (7.8)	98 (28.5)	117 (34.0)	63 (18.3)
	3	368 (34.8)				46 (12.5)	30 (8.2)	139 (37.8)	116 (31.5)	37 (10.1)
종교	개신교	110 (10.4)	13.056	16	0.6686	10 (9.1)	9 (8.2)	25 (22.7)	44 (40.0)	22 (20.0)
	천주교	143 (13.5)				16 (11.2)	11 (7.7)	42 (29.4)	49 (34.3)	25 (17.5)
	불교	390 (36.9)				45 (11.6)	28 (7.2)	112 (28.8)	141 (36.2)	63 (16.2)
	무교	370 (35.0)				49 (13.2)	20 (5.4)	122 (33.0)	128 (34.6)	51 (13.8)
	기타	43 (4.1)				5 (11.6)	4 (9.3)	8 (18.6)	16 (37.2)	10 (23.3)
거주지역	시지구	543 (51.4)	9.438	4	0.0510	59 (10.9)	28 (5.2)	176 (32.5)	190 (35.1)	89 (16.4)
	읍지구	513 (48.6)				66 (12.9)	44 (8.6)	133 (25.9)	188 (36.6)	82 (16.0)
모집원인	국출	167 (15.8)	20.984	12	0.0506	22 (13.2)	15 (9.0)	40 (24.0)	57 (34.1)	33 (19.8)
	중출	251 (23.8)				22 (8.8)	15 (6.0)	66 (26.3)	92 (36.7)	56 (22.3)
	고출	520 (49.3)				69 (13.3)	34 (6.6)	166 (32.0)	182 (35.1)	68 (13.1)
	대출	117 (11.1)				12 (10.3)	8 (6.8)	36 (30.8)	47 (40.2)	14 (12.0)
전업여부	상류층	41 (3.9)	21.669	8	0.0056*	5 (12.5)	8 (20.0)	8 (20.0)	14 (35.0)	5 (12.5)
	중류층	880 (83.3)				99 (11.3)	49 (5.6)	269 (30.6)	320 (36.4)	143 (16.3)
	하류층	135 (12.8)				21 (15.6)	15 (11.1)	32 (23.7)	44 (32.6)	23 (17.0)
직업	공무원	105 (9.9)	22.406	16	0.1305	10 (9.5)	12 (11.4)	27 (25.7)	40 (38.1)	16 (15.2)
	회사원	100 (9.5)				6 (6.0)	7 (7.0)	40 (40.0)	32 (32.0)	15 (15.0)
	상업	393 (37.2)				47 (12.0)	23 (5.9)	119 (30.4)	133 (33.9)	70 (17.9)
	농수산업	441 (41.8)				62 (14.1)	27 (6.1)	118 (26.8)	166 (37.6)	68 (15.4)
	무직	17 (1.6)				0 (0.0)	3 (17.6)	5 (29.4)	7 (41.2)	2 (11.8)

* P<0.01 ** P<0.0005 *** P<0.0001

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7>에 따르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당연히 개방하여 수입하여야 한다(4.1%), ② 우리 농업에 타격이 없는 품목만

〈표 27〉 農産物 輸入

변인	변인 구분	변인 인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43 (4.1)	673 (63.7)	237 (22.4)	64 (6.1)	39 (3.7)
성	남	523 (49.5)	3.563	4	0.4684	27 (5.2)	330 (63.1)	118 (22.6)	29 (5.5)	19 (3.6)
		533 (50.5)				16 (3.0)	343 (64.4)	119 (22.3)	35 (6.6)	20 (3.8)
학	1	344 (32.6)	11.418	8	0.1796	12 (3.5)	216 (62.8)	83 (24.1)	17 (4.9)	16 (4.7)
	2	344 (32.6)				13 (3.8)	215 (62.5)	85 (24.7)	17 (4.9)	14 (4.1)
	3	368 (34.8)				18 (4.9)	242 (65.8)	69 (18.8)	30 (8.2)	9 (2.4)
종	개	110 (10.4)	21.548	16	0.1584	3 (2.7)	59 (53.6)	35 (31.8)	9 (8.2)	4 (3.6)
		143 (13.5)				6 (4.2)	95 (66.4)	27 (18.9)	10 (7.0)	5 (3.5)
		390 (36.9)				20 (5.1)	252 (64.6)	84 (21.5)	23 (5.9)	11 (2.8)
		370 (35.0)				11 (3.0)	244 (65.9)	81 (21.9)	16 (4.3)	18 (4.9)
		43 (4.1)				3 (7.0)	23 (53.5)	10 (23.3)	6 (14.0)	1 (2.3)
거	시	543 (51.4)	13.544	4	0.0089	24 (4.4)	368 (67.8)	113 (20.8)	25 (4.6)	13 (2.4)
		513 (48.6)				19 (3.7)	305 (59.5)	124 (24.2)	39 (7.6)	26 (5.1)
모	국	167 (15.8)	9.258	12	0.6808	6 (3.6)	102 (61.1)	45 (26.9)	10 (6.0)	4 (2.4)
		251 (23.8)				11 (4.4)	155 (61.8)	65 (25.9)	13 (5.2)	7 (2.8)
		520 (49.3)				20 (3.8)	343 (66.0)	100 (19.2)	34 (6.5)	23 (4.4)
		117 (11.1)				6 (5.1)	73 (62.4)	26 (22.2)	7 (6.0)	5 (4.3)
전	상	41 (3.9)	8.493	8	0.3879	5 (12.2)	24 (58.5)	9 (22.0)	2 (4.9)	1 (2.4)
		880 (83.3)				32 (3.6)	566 (64.3)	194 (22.0)	54 (6.1)	34 (3.9)
		135 (12.8)				6 (4.4)	83 (61.5)	34 (25.2)	8 (5.9)	4 (3.0)
부	공	105 (9.9)	32.526	16	0.0085	7 (6.7)	60 (57.1)	24 (22.9)	8 (7.6)	6 (5.7)
		100 (9.5)				4 (4.0)	72 (72.0)	17 (17.0)	5 (5.0)	2 (2.0)
		393 (37.2)				13 (3.3)	252 (64.1)	88 (22.4)	22 (5.6)	18 (4.6)
		441 (41.8)				16 (3.6)	285 (64.6)	102 (23.1)	25 (5.7)	13 (2.9)
		17 (1.6)				3 (17.6)	4 (23.5)	6 (35.3)	4 (23.5)	0 (0.0)

** P<0.01

개방, 수입하여야 한다(63.7%), ③ 절대 수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22.4%), ④ 모르겠다(6.1%), ⑤ 기타(3.7%)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 농업에 타격

이 없는 품목만 개방하여야 한다는 반응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절대 수입 불가 입장도 22.4%를 차지하고 있어 제한적 수입 개방을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 學年別, 宗教別, 보호자 敎育程度別, 경제적 階層別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당연히 개방하여 수입하여야 한다'는 반응은 시지구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농업에 타격이 없는 품목만 개방, 수입하여야 한다'는 반응 역시 시지구 학생들이 높다. 그러나 '절대 수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입 不可 입장에 대한 반응은 읍지구 학생들이 시지구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당연히 개방하여 수입하여야 한다'는 반응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농업에 타격이 없는 품목만 개방, 수입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회사원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면서 選別的인 수입과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5) 經濟的 成功 要因

경제적 성공 요인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이 성실하게 일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8>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18.6%), ② 잘 살 수 있을 것이다(58.0%), ③ 좀 어려운 편이다(16.9%), ④ 대단히 어렵다(2.9%), ⑤ 기타(3.6%)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반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실성이 경제적인 富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남학생은 '잘 살 수 있다'는 반응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21.0%나 되고 있어 성실성이 경제적 성공의 요인이라는 입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居住地別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대

〈표 28〉 經濟的 成功 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비(%)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56 (100)				196 (18.6)	613 (58.0)	178 (16.9)	31 (2.9)	38 (3.6)
성	남	523 (49.5)	5.442	4	0.2448	111 (21.2)	296 (56.6)	84 (16.1)	13 (2.5)	19 (3.6)
별	여	533 (50.5)				85 (15.9)	317 (59.5)	94 (17.6)	18 (3.4)	19 (3.6)
학	1	344 (32.6)	16.336	8	0.0378	83 (24.1)	195 (56.7)	46 (13.4)	7 (2.0)	13 (3.8)
년	2	344 (32.6)				58 (16.9)	201 (58.4)	59 (17.2)	11 (3.2)	15 (4.4)
별	3	368 (34.8)				55 (14.9)	217 (59.0)	73 (19.8)	13 (3.5)	10 (2.7)
종	개신교	110 (10.4)	14.543	16	0.5583	22 (20.0)	64 (58.2)	15 (13.6)	6 (5.5)	3 (2.7)
	천주교	143 (13.5)				26 (18.2)	78 (54.5)	29 (20.3)	3 (2.1)	7 (4.9)
	불교	390 (36.9)				81 (20.8)	229 (58.7)	63 (16.2)	7 (1.8)	10 (2.6)
	무교	370 (35.0)				58 (15.7)	220 (59.5)	62 (16.8)	13 (3.5)	17 (4.6)
	기타	43 (4.1)				9 (20.9)	22 (51.2)	9 (20.9)	2 (4.7)	1 (2.3)
지역	시지구	543 (51.4)	5.317	4	0.2563	101 (18.6)	302 (55.6)	101 (18.6)	20 (3.7)	19 (3.5)
	읍지구	513 (48.6)				95 (18.5)	311 (60.6)	77 (15.0)	11 (2.1)	19 (3.7)
교육	국졸	167 (15.8)	20.558	12	0.0572	36 (21.6)	85 (50.9)	35 (21.0)	5 (3.0)	6 (3.6)
	중졸	251 (23.8)				46 (18.3)	158 (62.9)	35 (13.9)	5 (2.0)	7 (2.8)
	고졸	520 (49.3)				86 (16.5)	313 (60.2)	90 (17.3)	13 (2.5)	18 (3.5)
	대졸	117 (11.1)				27 (23.1)	57 (48.7)	18 (15.4)	8 (6.8)	7 (6.0)
직업	상류층	41 (3.9)	7.566	8	0.4770	7 (17.1)	23 (56.1)	7 (17.1)	3 (7.3)	1 (2.4)
	중류층	880 (83.3)				167 (19.0)	517 (58.8)	144 (16.4)	23 (2.6)	29 (3.3)
	하류층	135 (12.8)				22 (16.3)	73 (54.1)	27 (20.0)	5 (3.7)	8 (5.9)
직업	공무원	105 (9.9)	20.724	16	0.1894	20 (19.0)	56 (53.3)	20 (19.0)	3 (2.9)	6 (5.7)
	회사원	100 (9.5)				12 (12.0)	61 (61.0)	18 (18.0)	6 (6.0)	3 (3.0)
	상업	393 (37.2)				84 (21.4)	211 (53.7)	66 (16.8)	12 (3.1)	20 (5.1)
	농수산업	441 (41.8)				78 (17.7)	274 (62.1)	71 (16.1)	9 (2.0)	9 (2.0)
	무직	17 (1.6)				2 (11.8)	11 (64.7)	3 (17.6)	1 (5.9)	0 (0.0)

* P<0.05

체로 시지역 학생들이 읍지역 학생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중졸, 고졸, 국졸, 대졸의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경제적 階層別 역시 유의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긍정

적인 반응도는 중류층, 상류층, 하류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는 상류층, 하류층, 중류층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농·수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의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6. 國民福祉觀

國民 福祉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우 이웃 지원 방법, 福祉制度의 증점, 문화 시설, 복지시설의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不遇 이웃 支援 方法

불우 이웃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에는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 이웃을 돕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나라에서 전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68.2%), ② 잘 사는 독지가에게 도움을 받도록 주선해야 한다(7.0%),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때만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15.4%), ④ 개인 문제이므로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한다(3.8%), ⑤ 기타(5.6%)로 나타났다. 불우 이웃 지원 방법으로는 社會保障 제도의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 따라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여학생인 경우는 남학생보다 국가 의존적 또는 독지가 등 타인 의지적인 불우 이웃 지원 성향이 강하고, 남학생인 경우는 여학생보다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學年別로도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저학년일수록 가급적 국가의 도움을 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宗教別, 居住地別로도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시지구 학생들은 읍지구 학생들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의한 국가 지원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인한 국가

〈표 29〉 불우 이웃 支援 方法

변인	변 구분	인원 비율 (%)	x ²	df	유의도	반 용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성	전	1,056 (100)				720 (68.2)	74 (7.0)	163 (15.4)	40 (3.8)	59 (5.6)
성	남	523 (49.5)	2.862	4	0.5812	349 (66.7)	34 (6.5)	89 (17.0)	22 (4.2)	29 (5.5)
성	여	533 (50.5)				371 (69.6)	40 (7.5)	74 (13.9)	18 (3.4)	30 (5.6)
학	1	344 (32.6)	8.107	8	0.4231	222 (64.5)	22 (6.4)	57 (16.6)	18 (5.2)	25 (7.3)
학	2	344 (32.6)				243 (70.6)	22 (6.4)	53 (15.4)	10 (2.9)	16 (4.7)
학	3	368 (34.8)				255 (69.3)	30 (8.2)	53 (14.4)	12 (3.3)	18 (4.9)
종	기	110 (10.4)	16.927	16	0.3902	79 (71.8)	10 (9.1)	12 (10.9)	4 (3.6)	5 (4.5)
종	신	143 (13.5)				101 (70.6)	4 (2.8)	25 (17.5)	3 (2.1)	10 (7.0)
종	주	390 (36.9)				262 (67.2)	38 (9.7)	55 (14.1)	15 (3.8)	20 (5.1)
종	불	370 (35.0)				249 (67.3)	19 (5.1)	63 (17.0)	17 (4.6)	22 (5.9)
종	무	43 (4.1)				29 (67.4)	3 (7.0)	8 (18.6)	1 (2.3)	2 (4.7)
종	기									
거	시	543 (51.4)	9.026	4	0.0604	391 (72.0)	30 (5.5)	79 (14.5)	17 (3.1)	26 (4.8)
거	읍	513 (48.6)				329 (64.1)	44 (8.6)	84 (16.4)	23 (4.5)	33 (6.4)
보	국	167 (15.8)	21.176	12	0.0479*	107 (64.1)	11 (6.6)	27 (16.2)	6 (3.6)	16 (9.6)
보	중	251 (23.8)				165 (65.7)	26 (10.4)	35 (13.9)	10 (4.0)	15 (6.0)
보	고	520 (49.3)				366 (70.4)	32 (6.2)	86 (16.5)	15 (2.9)	21 (4.0)
보	대	117 (11.1)				81 (69.2)	5 (4.3)	15 (12.8)	9 (7.7)	7 (6.0)
보	기									
직	상	41 (3.9)	10.151	8	0.2546	24 (58.5)	5 (12.2)	9 (22.00)	1 (2.4)	2 (4.9)
직	중	880 (83.3)				615 (69.9)	55 (6.3)	128 (14.5)	34 (3.9)	48 (5.5)
직	하	135 (12.8)				81 (60.0)	14 (10.4)	26 (19.3)	5 (3.7)	9 (6.7)
보	공	105 (9.9)	23.783	16	0.0944	73 (69.5)	5 (4.8)	16 (15.2)	6 (5.7)	5 (4.8)
보	회	100 (9.5)				64 (64.0)	5 (5.0)	16 (16.0)	6 (6.0)	9 (9.0)
보	상	393 (37.2)				281 (71.5)	27 (6.9)	52 (13.2)	9 (2.3)	24 (6.1)
보	방	441 (41.8)				293 (66.4)	36 (8.2)	75 (17.0)	16 (3.6)	21 (4.8)
보	무	17 (1.6)				9 (52.9)	1 (5.9)	4 (23.5)	3 (17.6)	0 (0.0)
보	기									

* P<0.05

적 지원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30〉 福祉制度의 重點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분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연계	계	1,056 (100)				168 (15.9)	199 (18.8)	279 (26.4)	353 (33.4)	57 (5.4)
성별	남	523 (49.5)	16.258	4	0.0027	68 (13.0)	114 (21.8)	130 (24.9)	189 (36.1)	22 (4.2)
		533 (50.5)				100 (18.8)	85 (15.9)	149 (28.0)	164 (30.8)	35 (6.6)
학년	1	344 (32.6)	10.270	8	0.2466	54 (15.7)	62 (18.0)	83 (24.1)	123 (35.8)	22 (6.4)
	2	344 (32.6)				55 (16.0)	53 (15.4)	104 (30.2)	115 (33.4)	17 (4.9)
	3	368 (34.8)				59 (16.0)	84 (22.8)	92 (25.0)	115 (31.3)	18 (4.9)
종별	개신교	110 (10.4)	25.269	16	0.0652	19 (17.3)	21 (19.1)	32 (29.1)	30 (27.3)	8 (7.3)
	천주교	143 (13.5)				21 (14.7)	25 (17.5)	39 (27.3)	52 (36.4)	6 (4.2)
	불교	390 (36.9)				74 (19.0)	80 (20.5)	78 (20.0)	137 (35.1)	21 (5.4)
	무교	370 (35.0)				52 (14.1)	65 (17.6)	114 (30.8)	117 (31.6)	22 (5.9)
	기타	43 (4.1)				2 (4.7)	8 (18.6)	16 (37.2)	17 (39.5)	0 (0.0)
지역	시지구	543 (51.4)	4.477	4	0.3452	89 (16.4)	103 (19.0)	155 (28.5)	167 (30.8)	29 (5.3)
	읍지구	513 (48.6)				79 (15.4)	96 (18.7)	124 (24.2)	186 (36.3)	28 (5.5)
직업	귀족	167 (15.8)	12.422	12	0.4124	24 (14.4)	27 (16.2)	40 (24.0)	62 (37.1)	14 (8.4)
	중류	251 (23.8)				50 (19.9)	42 (16.7)	67 (26.7)	81 (32.3)	11 (4.4)
	고류	520 (49.3)				76 (14.6)	110 (21.2)	135 (26.0)	171 (32.9)	28 (5.4)
	대류	117 (11.1)				18 (15.4)	20 (17.1)	36 (30.8)	39 (33.3)	4 (3.4)
직급	상류층	41 (3.9)	16.728	8	0.0331	2 (4.9)	6 (14.6)	12 (29.3)	17 (41.5)	4 (9.8)
	중류층	880 (83.3)				147 (16.7)	178 (20.2)	221 (25.1)	291 (33.1)	43 (4.9)
	하류층	135 (12.8)				19 (14.1)	15 (11.1)	46 (34.1)	45 (33.3)	10 (7.4)
직종	공무원	105 (9.9)	26.407	16	0.0486	14 (13.3)	20 (19.0)	28 (26.7)	41 (39.0)	2 (1.9)
	회사원	100 (9.5)				23 (23.0)	15 (15.0)	28 (28.0)	26 (26.0)	8 (8.0)
	상업	393 (37.2)				50 (12.7)	76 (19.3)	116 (29.5)	127 (32.3)	24 (6.1)
	농수산업	441 (41.8)				80 (18.1)	88 (20.0)	101 (22.9)	151 (34.2)	21 (4.8)
	무직	17 (1.6)				1 (5.9)	0 (0.0)	6 (35.3)	8 (47.1)	2 (11.8)

* P<0.05 ** P<0.005

2) 福祉制度의 重點

國家福祉政策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는 복지 국가를

위한 노력 중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의료(15.9%), ② 노후 생계(18.8%), ③ 교육(26.4%), ④ 환경(33.4%), ⑤ 기타(5.4%)로 나타났다.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 교육, 노후 생계, 의료 순으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환경보전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남학생인 경우는 환경, 교육, 노후 생계, 의료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인 경우는 환경, 교육, 의료, 노후 생계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남녀 학생 모두가 환경 보전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환경과 노후 생계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과 의료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상류층인 경우 환경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류층인 경우 교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상류층으로 갈수록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職業別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환경, 교육, 노후 생계 순으로 복지 국가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회사원인 경우는 교육, 환경, 의료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3) 文化施設

청소년 文化施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충분한 시설이 있다(2.1%), ② 어느 정도 충분하다(9.4%), ③ 약간 모자라다(25.7%), ④ 매우 부족하다(60.2%), ⑤ 기타(2.7%)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0.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여학생이 더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學年別로는 $P<0.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학년이 높을수록 청소년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宗教別로는 $P<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모

〈표 31〉 文化施設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22 (2.1)	99 (9.4)	271 (25.7)	636 (60.2)	28 (2.7)
성	남	523 (49.5)	17.856	4	** 0.0013	15 (2.9)	59 (11.3)	151 (28.9)	283 (54.1)	15 (2.9)
별	여	533 (50.5)				7 (1.3)	40 (7.5)	120 (22.5)	353 (66.2)	13 (2.4)
학	1	344 (32.6)	87.341	8	**** 0.0000	12 (3.5)	51 (14.8)	130 (37.8)	139 (40.4)	12 (3.5)
년	2	344 (32.6)				6 (1.7)	28 (8.1)	65 (18.9)	236 (68.6)	9 (2.6)
별	3	368 (34.8)				4 (1.1)	20 (5.4)	76 (20.7)	261 (70.9)	7 (1.9)
종	개신교	110 (10.4)	29.589	16	* 0.0203	3 (2.7)	13 (11.8)	27 (24.5)	66 (60.0)	1 (0.9)
교	천주교	143 (13.5)				2 (1.4)	18 (12.6)	34 (23.8)	84 (58.7)	5 (3.5)
별	불교	390 (36.9)				11 (2.8)	43 (11.0)	104 (26.7)	221 (56.7)	11 (2.8)
	무교	370 (35.0)				4 (1.1)	21 (5.7)	92 (24.9)	246 (66.5)	7 (1.9)
	기타	43 (4.1)				2 (4.7)	4 (9.3)	14 (32.6)	19 (44.2)	4 (9.3)
거	시지구	543 (51.4)	10.047	4	* 0.0397	9 (1.7)	38 (7.0)	138 (25.4)	345 (63.5)	13 (2.4)
주	읍지구	513 (48.6)				13 (2.5)	61 (11.9)	133 (25.9)	291 (56.7)	15 (2.9)
보	국	167 (15.8)	25.816	12	* 0.0114	3 (1.8)	11 (6.6)	50 (29.9)	100 (59.9)	3 (1.8)
육	중	251 (23.8)				5 (2.0)	34 (13.5)	71 (28.3)	137 (54.6)	4 (1.6)
자	고	520 (49.3)				12 (2.3)	50 (9.6)	131 (25.2)	312 (60.0)	15 (2.9)
라	대	117 (11.1)				2 (1.7)	4 (3.4)	19 (16.2)	86 (73.5)	6 (5.1)
다	졸	117 (11.1)				2 (1.7)	4 (3.4)	19 (16.2)	86 (73.5)	6 (5.1)
자	상	41 (3.9)	14.457	8	0.0706	1 (2.4)	9 (22.0)	12 (29.3)	17 (41.5)	2 (4.9)
라	중	880 (83.3)				20 (2.3)	82 (9.3)	226 (25.7)	529 (60.1)	23 (2.6)
자	하	135 (12.8)				1 (0.7)	8 (5.9)	33 (24.4)	90 (66.7)	3 (2.2)
보	공무원	105 (9.9)	41.837	16	*** 0.0004	4 (3.8)	7 (6.7)	22 (21.0)	69 (65.7)	3 (2.9)
육	회사원	100 (9.5)				1 (1.0)	7 (7.0)	32 (32.0)	56 (56.0)	4 (4.0)
자	상업	393 (37.2)				7 (1.8)	36 (9.2)	90 (22.9)	245 (62.3)	15 (3.8)
라	농수산업	441 (41.8)				7 (1.6)	45 (10.2)	125 (28.3)	258 (58.5)	6 (1.4)
다	무직	17 (1.6)				3 (17.6)	4 (23.5)	2 (11.8)	8 (47.1)	0 (0.0)

* P<0.05 ** P<0.005 *** P<0.0005 **** P<0.0001

자라다'에, 無數와 개신교가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로는 P<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시지구 학생이 '모자라다'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 敎育程度別에서는 P<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중

고졸의 경우 '모자라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 職業別에서는 P<0.0005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농·수산업과 상업의 경우 '모자라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32〉 福祉施設

인원	인구분	인원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계	1,056 (100)				35 (3.3)	115 (10.9)	354 (33.5)	531 (50.3)	21 (2.0)
성	남	523 (49.5)	18.268	4	0.0011	26 (5.0)	68 (13.0)	181 (34.6)	240 (45.9)	8 (1.5)
별	여	533 (50.5)				9 (1.7)	47 (8.8)	173 (32.5)	291 (54.6)	13 (2.4)
학	1	344 (32.6)	87.766	8	0.0000	23 (6.7)	62 (18.0)	136 (39.5)	112 (32.6)	11 (3.2)
년	2	344 (32.6)				6 (1.7)	33 (9.6)	111 (32.3)	190 (55.2)	4 (1.2)
별	3	368 (34.8)				6 (1.6)	20 (5.4)	107 (29.1)	229 (62.2)	6 (1.6)
종	기	110 (10.4)	20.177	16	0.2124	3 (2.7)	11 (10.0)	39 (35.5)	53 (48.2)	4 (3.6)
교	신	143 (13.5)				4 (2.8)	22 (15.4)	54 (37.8)	60 (42.0)	3 (2.1)
별	주	390 (36.9)				16 (4.1)	47 (12.1)	131 (33.6)	189 (48.5)	7 (1.8)
	고	370 (35.0)				11 (3.0)	27 (7.3)	116 (31.4)	210 (56.8)	6 (1.6)
	무	43 (4.1)				1 (2.3)	8 (18.6)	14 (32.6)	19 (44.2)	1 (2.3)
거	시	543 (51.4)	4.188	4	0.3812	23 (4.2)	61 (11.2)	185 (34.1)	265 (48.8)	9 (1.7)
주	읍	513 (48.6)				12 (2.3)	54 (10.5)	169 (32.9)	266 (51.9)	12 (2.3)
민	국	167 (15.8)	9.349	12	0.6729	2 (1.2)	15 (9.0)	63 (37.7)	82 (49.1)	5 (3.0)
자	중	251 (23.8)				12 (4.8)	28 (11.2)	85 (33.9)	121 (48.2)	5 (2.0)
자	고	520 (49.3)				18 (3.5)	61 (11.7)	172 (33.1)	260 (50.0)	9 (1.7)
자	대	117 (11.1)				3 (2.6)	11 (9.4)	34 (29.1)	67 (57.3)	2 (1.7)
자	출									
정	상	41 (3.9)	16.931	8	0.0308	5 (12.5)	8 (19.5)	11 (26.8)	16 (39.0)	1 (2.4)
상	중	880 (83.3)				28 (3.2)	93 (10.6)	300 (34.1)	443 (50.3)	16 (1.8)
업	하	135 (12.8)				2 (1.5)	14 (10.4)	43 (31.9)	72 (53.3)	4 (3.0)
민	공	105 (9.9)	19.579	16	0.2398	6 (5.7)	10 (9.5)	34 (32.4)	54 (51.4)	1 (1.0)
자	회	100 (9.5)				3 (3.0)	14 (14.0)	34 (34.0)	47 (47.0)	2 (2.0)
자	상	393 (37.2)				10 (2.5)	47 (12.0)	127 (32.3)	198 (50.4)	11 (2.8)
자	농	441 (41.8)				13 (2.9)	42 (9.5)	153 (34.7)	226 (51.2)	7 (1.6)
자	수	17 (1.6)				3 (17.6)	2 (11.8)	6 (35.3)	6 (35.3)	0 (0.0)
자	무									

* P<0.05 ** P<0.005 *** P<0.0001

4) 福祉施設

福祉施設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복지시설(의료 기관, 체육 시설, 공원 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2>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충분하다(3.3%), ② 어느 정도 충분하다(10.9%), ③ 약간 부족하다(33.5%), ④ 매우 부족하다(50.3%), ⑤ 기타(2.0%)로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性別에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매우 부족하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더 높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어느 정도 충분하거나, 약간 부족하다’는 반응이 높다. 學年別로는 $P < 0.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매우 부족하다’는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저학년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충분하거나, 약간 부족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는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며 상류층으로 갈수록 ‘충분하거나,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반응이 높고, 하류층으로 갈수록 ‘매우 부족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結論：要約 및 提言

1. 要約

本研究는 제주도 중학생들의 經濟意識을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경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基礎 資料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文獻研究를 통하여 경제의식의 개념과 先行研究를 분석하였고 조사 연구는 質問紙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標集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2개교씩, 서부지역 및 동부지역 각 1개교씩 총 6개 학교 24개 학급 1,200명을 無作為 抽出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1,129부를 회수, 그 중 부적합한 응답지를 제외시켜 1,056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내용은 勞動觀 3개 문항, 職業觀 4개 문항, 消費觀 7개 문항, 貯蓄觀 4개 문항, 國民經濟觀 5개 문항, 國民福祉觀 4개 문항으로 6개 영역에 총 27개 문항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 결과는 百分比 및 문항에 따른 背景變因別 χ^2 檢證을 하였다.

영역별 문항 분석 결과를 보면

(1) 勞動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82.2%)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勞動組合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필요한 단체(96.7%)라는 반응을 보였다. 勞使 葛藤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양쪽에 책임이 있다(70.0%)는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노동자,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고 한 반면 여학생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사 갈등에 대한 남녀학생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階層別에서 상류층의 학생들이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중류층의 학생들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72.4%)고 하고 있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노사 갈등의 견해 또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職業觀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는 適性(69.3%), 報酬(10.4%), 명예(3.8%) 順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適性面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여 73.9%, 남 64.6%)을, 報酬面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남 15.3%, 여 5.6%) 응답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高學年이 低學年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능력(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66.6%), 안정된 직장(25.5%)의 순으로 選好하고 있으며 남학생(29.8%)은 여학생(21.2%)보다 안정과 승진 기회에, 여학생(72.0%)은 남학생(61.0%)보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어 남학생이 보다 利害打算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직원 채용 기준에서는 능력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60.5%)을 선호하고 있으며 高學歷 부모의 자녀일수록 低學歷 부모의 자녀보다 능력과 학벌을, 低學歷 부모의 자녀일수록 高學歷 부모의 자녀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노동자의 대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67.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消費觀

상품 선택의 기준에서는 품질(46.1%), 모양(21.5%), 가격(20.3%)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남학생은 품질(49.3%), 가격(21.4%)을 우선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품질(43.0%), 모양(27.2%), 가격(19.1%)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상품의 모양에도 유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高學年으로 갈수록 모양(15.4%, 23.5%, 25.3%)과 가격(14.8%, 21.2%, 24.5%)을 우선하고 있다. 유명상표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기업 제품의 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49.2%)이 부정적인 반응(33.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용품 관리에 대한 의식에서는 혼자 찾다가 없으면 그만 둔다(76.5%)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시지구 학생들은 혼자 찾다 없으면 그만 둔다(80.7%)는 경우가 읍지구(72.1%) 학생보다 많았다. 용돈 마련 방법에서는 필요할 때 마다 타서 쓴다(51.6%)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계획적이지 못한 消費行態를 나타내고 있다.

(4) 貯蓄觀

학생들은 저축을 급한 경우에 대비하거나(54.7%) 한번에 사기 힘든 것을 사려는(15.9%)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달 저축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남여학생 모두 60%를 넘고 있어 거의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학생 모두 전혀 하지않는 경우(35.2%, 24.0%)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高學年일수록 전혀 저축을 안고(45.7%, 25.6%, 16.9%) 있어 더 소비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저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6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여학생(69.0%)이 남학생(58.9%)보다, 投資로서의 저축은 남학생(17.6%)이 여학생보다 높게(10.5%) 나타나고 있다. 貯蓄 增大策으로 經濟教育(53.8%)과 물가 안정(35.5%)을 들고 있으며, 低學年일수록 경제교육이 貯蓄 增大策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實物經濟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國民 經濟觀

貧困의 책임은 '기회의 不在(21.2%), 학식과 학벌이 없어서(19.9%), 게을러서(19.6%), 집안 배경과 상속 재산이 없어서(15.7%)' 등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 기회의 부재, 집안 배경 및 적은 상속 재산 등 남의 탓에 두는 경우(36.9%)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貧困의 책임은 남학생은 게으름, 기회 不在, 학식과 학벌, 재산 순인 반면 여학생은 학식과 학벌, 기회 不在, 집안 배경과 상속 재산의 없음, 게으름 순으로 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高學年일수록(28.8%, 37.8%, 43.7%) 가난의 책임을 남의 탓 즉 자신 外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53.5%)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34.4%)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이 더 긍정적(61.8%)이나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40.9%)이 매우 높아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이다. 못 사는 이유에서는 게으름(35.8%), 기회의 不在(29.3%) 순이며 高學年일수록 남의 탓으로 보고 있어 高學年일수록 가난을 社會問題로 보고 있다. 農產物 輸入에서는 타격없는 품목만 開放(63.7%), 절대 不可(22.4%)의 순이며 읍지구 학생은 절대 수입 不可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성공 요인에서는 誠實性이 성공 요인이라는 반응(76.6%)으로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高學年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6) 國民 福祉觀

불우 이웃 지원 방법으로는 社會保障制度의 확립에 의한 지원 방법(68.2%),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15.4%), 독지가 도움 주선(7.0%) 등 국가와 이웃의 지원을

들고 있다. 福祉制度의 중점에서는 環境(33.4%), 敎育(26.4%), 老後生計(18.8%), 의료(15.9%)의 순으로서 環境 보전과 敎育에 대해 국가에 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文化施設이 대체로 부족하다(85.9%)고 인식하고 있으며, 福祉施設도 대체적으로 부족하다(83.8%)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高學年일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文化, 福祉施設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提言

중학생의 經濟意識 調査結果가 학교 敎育 및 사회에 주는 示唆點과 向後 課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經濟敎育의 再定立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이 저축 증대책으로 단순히 경제敎育의 효과에 기대하는 것을 볼 때, 理論 敎育의 강화를 통한 實物經濟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高學年일수록 돈을 중시하며 상품의 모양을 중시하고, 저축을 안하는 등의 문제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저축을 안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價値觀 형성을 위해 學年別, 性別에 따른 단계적 價値敎育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貧困의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요구 못지 않게 한 사람의 經濟人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는 經濟敎育이 요구된다.

넷째,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高學年일수록 文化·福祉施設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文化·福祉施設의 擴充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租稅 負擔의 증가 등 우리의 고통 分擔이 필요하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경제敎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經濟意識과 관련된 계속적이고 보다 深層的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 청소년들 대상의 一回的 調査의 성격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들의 意識의 변화를 일관되게 살펴볼 수 있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중학생들이 經濟意識 형성 過程에 대한 보다 深層的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內 敎育過程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 현상과 問題를 이해하고 있는지, 경제생활에서의 價値觀을 어떻게 定立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 文獻

<單行本>

- 權五翼 外(1964). 『經濟學 大辭典』, 博英社.
—— (1984). 『經濟學 大辭典』, 博英社.
宋丙洛(1990). 『韓國 經濟論』, 博英社.
안청시·최일섭(1987). 『전후 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論 文 >

- 郭英吉(1988). “國民學校 學生의 經濟 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金鎮圭(1990). “時事 資料 活用을 통한 經濟 意識 內面化 方案,” 『社會科 教育』 제23호, 韓國 社會科 教育 研究院.
金泰泳(1984). “民主 市民 教育으로서의 經濟 教育,” 『韓國 社會科 教育學會』, 제 34차 研究發表會誌.
金才仁(1985).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關한 調查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南先祐(1980). “中學生의 經濟 生活 意識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貯蕃推進中央委員會(1988). “初·中學生의 經濟 意識 調查.”
曹永達(1985). “民主 市民 教育으로서의 經濟 教育,” 『社會와 教育』 제9집.
—— (1992). “韓國 經濟 社會의 變革과 市民 經濟 教育의 改善에 關한 研究,” 『韓國 經濟 教育의 實態 및 課題』, 國民 經濟 教育 研究所.
洪承稷(1969).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 問題研究所.

<Summary>

A Study on the Econom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Kim, Jung-Ho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ng-G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basic informations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teaching the econom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 Island.

To do this, 1,056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City, Seogwipo-City,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Cheju-Do were chosen and questioned on six fields---- view of Labor, Jobs, Savings, Consumptions,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Weifare. All data were calculated by the percentages and χ^2 -test to clarify the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in the above mentioned field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view of Labor, it shows its positive responses of thinking labor sacred (82.2%) and organizing the labor union (96.7%). They think both labor and management lead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conflicts between them(70.0%).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In view of jobs, it shows they want to get a job for their vocational aptitude(69.3%). Especially for its wages, more high grade students (than low grade students) and more boys (than girls) want to receive a good pay, and they want to get a job to give full pay to their ability(66.6%).

In view of consumptions, it shows they want to buy things for quality(46.1%), shapes(21.5%), and prices(20.3%) and that high grade students and girls are apt to think the shapes more important than others. If they lose their school supplies, they will not look for them(76.5%). They receive their pocket money as need(51.6%) or once a month(20.3%).

In view of savings, it shows they save nothing or less than 3,000 won (above 60%). For increasing savings, low grade students expect to carry economy education into effect(59.3%) and high grade students expect to stabilize the prices and increase the bank interest rates.

In view of national economy, it shows high grade students are apt to put the poverty down to the others(43.7%), and they answer that economy will improve in the future(53.3%)-in this point girls are more negative than boys. For the economic success, they think sincerity and honesty must be essential(76.6%) and only 4.1% of students agree to opening of farm and marine products.

In view of national welfare, 68.2% of students agree to perform th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ts priority are as follow: environment(33.4%), education(26.2%), maintenance of old age-living(18.8%). The lack of cultural and public welfare facilities are pointed out by more girls(than boys) and high grade students(than low grade students).

As stated above, we are to put an emphasis on teaching the desirable economy consciousness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including understanding the theory of object economy, forming the desirable

values, reinforcement of the economic education, and expansion of the cultural and public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to it, we should inquire the ways or courses of forming and learning their economy consciousness, and a study on the econom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has to be accomplished continuously and extensively.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경제 의식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답해 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 결과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성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집단 단위로만 분석될 결과는 오직 학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설문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답이 없으면 <기타>에 꼭 적어 주십시오.)

1992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정 호

1.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그렇다.
() 2. 그럴 수도 있다.
() 3.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기타

2. 노동 조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 2. 어느 정도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 3. 전혀 필요치 않은 단체라고 생각한다.
() 4. 없어야 좋은 단체라고 생각한다.
() 5. 기타

3.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
() 2.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
() 3. 양 쪽에 책임이 있다.
() 4. 법률로 막고 담당 기관이 조정해 주어야 한다.
() 5. 기타

4.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겠습니까?
() 1. 보수는 적으나 남이 우러러 보는 직업
() 2. 아무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 3. 보수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
() 4. 보수는 적으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직업
() 5. 기타

5. '좋은 직업' 혹은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수입이 많은 직장
() 2. 안정된 직장(실업, 도산 위험이 없는 직장)
() 3. 승진 기회가 많은 직장
() 4. 자기 능력(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
() 5. 기타

6. 회사 사장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고 직원을 뽑겠습니까?
 1. 일류 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
 2. 능력은 부족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3. 친척의 소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4. 입사 시험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
 5. 기타
-
7. 요즘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기타
-
8.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상표 3. 가격
 2. 모양 4. 품질
 5. 기타
-
9.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질이 좋다."에 찬성합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다소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10. "일반적으로 수입 상품은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라는 말에 찬성합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다소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11. 가격이 비싼 상품은 가격이 싼 상품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12. 학교에서 학용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부모님이 새 것을 사주시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
 2. 나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찾지 않는다.
 3. 나 혼자 찾다가 없으면 그만 둔다.
 4. 선생님께 꼭 찾아 달라고 부탁드린다.
 5. 기타
-
13. 어떻게 용돈을 마련합니까?
 1.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
 2. 일주일에 한번씩 타서 쓴다.
 3. 한 달에 한번씩 타서 쓴다.
 4. 내 힘으로 벌어서 쓴다.
 5. 기타
-

14. 한 달 용돈의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1. 3,000원 미만
 2. 3,000원 - 5,000원 미만
 3. 5,000원 - 8,000원 미만
 4. 8,000원 - 10,000원 미만
 5. 10,000원 이상
15. 용돈 중에서 저축하는 돈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한번에 사기 힘든 것을 사려고
 2. 상급 학교 진학 때 보탬 예정으로
 3. 부모님이나 형제의 선물을 사려고
 4. 급한 경우에 대비해서
 5. 기타
-
16. 한 달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 없음
 2. 3,000원 미만
 3. 3,000원 - 5,000원 미만
 4. 5,000원 - 10,000원 미만
 5. 10,000원 이상
17. 저축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보다 잘 살기 위해
 2. 안정된 생활을 위해
 3.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4. 저축도 일종의 투지이기 때문에
 5. 기타
-
18.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 물가를 안정시킨다.
 2. 은행 이자를 무조건 높인다.
 3. 부동산 투자를 철저히 단속한다.
 4. 경제 교육을 잘 시켜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5. 기타
-
19. 우리 나라가 과거 2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면서도 아직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1. 집안 배경 및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
 2. 기회를 못 만나서
 3. 게으르기 때문에
 4. 학식과 학벌이 없어서
 5. 기타
-
20. 우리 나라의 미래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5. 지금보다 대단히 나빠질 것이다.
21. 사람이 잘 못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1. 집안 배경이 없어서
 2. 물려 받은 재산이 없어서
 3. 기회를 못 만나서
 4. 게으르기 때문에

- () 5. 학식, 학벌이 없어서
22. 농산물 수입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1. 당연히 개방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 2. 우리 농업에 타격이 없는 품목만 개방, 수입하여야 한다.
 () 3. 절대 수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 4. 모르겠다.
 () 5. 기타
23. "인간이 성실하게 일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 2.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 3. 좀 어려운 편이다.
 () 4. 대단히 어렵다.
 () 5. 기타
24. 우리의 이웃에는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 이웃을 돕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1.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나라에서 전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 2. 잘 사는 독지가에게 도움을 받도록 추천해야 한다.
 () 3.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때만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4. 개인 문제이므로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5. 기타
25. 현재 우리 나라는 복지 국가를 위한 노력 중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의료
 () 2. 노후 생계
 () 3. 교육
 () 4. 환경
 () 5. 기타
26. 우리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충분한 시설이 있다.
 () 2. 어느 정도 충분하다.
 () 3. 약간 모자라다.
 () 4. 매우 부족하다.
 () 5. 기타
27. 우리 주변에 복지 시설(의료 기관, 체육 시설, 공원 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1. 충분하다.
 () 2. 어느 정도 충분하다.
 () 3. 약간 부족하다.
 () 4. 매우 부족하다.
 () 5. 기타

인적 사항

28. 성별
 (1) 남 () (2) 여 ()

29. 학년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30. 응답자의 종교
 (1) 개신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무교 ()
 (5) 기타 ()
31. 현 거주지
 (1) 시지구 () (2) 읍지구 ()
32. 아버지(아버지가 안계신 경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교육 정도(중퇴의 경우는 해당 학교 졸업으로 함)
 (1) 국졸 () (2) 중졸 () (3) 고졸 () (4) 대졸 ()
33. 경제적 면에서 대체로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어느 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류층 () (2) 중류층 () (3) 하류층 ()
34. 보호자의 직업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공무원(교사 포함) () (2) 회사원 ()
 (3) 상업(서비스업 포함) () (4) 농·수산업(노동 포함) ()
 (5) 무직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